

『직지』와 『백운어록』의 분석을 통한 백운 선사상 再考

A Research on Baegun's Seon Ideology, Based on the Analysis of *Jikji* and *Baegun Ŏrok*

김 성 수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직지』의 편성 내용 |
| 2. 『白雲和尚語錄』에 입각한 백운의 禪思想 | 4. 결 론
<참고문헌> |

< 초 록 >

이 논문은 『직지』와 『백운어록』의 분석을 통하여 백운화상의 禪思想을 다시 고찰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白雲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의 바탕(心體)을 깨닫고자 한다면 ‘色[형상·행위]·聲[소리]·言語[말씀·文句]’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色·聲·言語’ 방편을 통(通)한 祖師禪의 실천·공부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백운은 마음(心)을 깨달을 수 있는 活路를 열었다.

둘째, 종래 백운의 禪思想이라고 간주해 왔던 ‘無心禪’, 바로 그 무심선에서 거론된 ‘백운의 無念·無心’에 관한 연원(淵源)은 ‘慧能의 無念’, ‘馬祖의 無心’, ‘黃蘗의 直下無心’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無念·無心·直下無心’은 祖師들이 見性한 내용의 핵심을 각각 말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의 바탕(體)과 작용(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無念·無心’은 곧 祖師禪에서 깨닫는 핵심 콘텐츠[내용]이고, ‘色·聲·言語’는 조사선을 실천하는 방편임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無念·無心’과 ‘色·聲·言語’ 방편은 ‘祖師禪에서의 깨달음’이라는 동전(銅錢)의 양면(兩面), 즉 ‘조사선 見性의 내용(앞면)과 실천(뒷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백운이 확찰대오(1353.1.17.)한 순간을 살펴본 결과, 백운은 ‘단정하게 앉아 있던(端坐) 중 『證道歌』의 한 文句 [言語]가 떠올라 이를 깊이 음미하다가 홀연 無心이 되면서 크게 깨달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선의 ‘色·聲·言語’ 방편 중 ‘言語’를 통하여 즉각 見性한 것이다. 또한 백운의 스승인 ‘石屋淸珉은 風亭[色]을 보고 깨달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祖師禪의 ‘色·聲·言語’ 방편 중 ‘色[형상]을 통하여 즉각 깨달은 사례이다. 따라서 白雲과 石屋은 모두 조사선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석옥청공에서 백운경한으로 전법·계승된 禪風은 바로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곧바로 견성하는 祖師禪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백운은 ‘『백운어록』 <祖師禪>’ 등에서 ‘조사선은 色·聲·言語를 떠나지 않는다(祖師禪不離色聲言語)’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리(聲)를 듣는 때가 바로 깨닫는 순간이며, ‘色[형상·행위]를 보는 때가 바로 깨닫는 순간이다”라고 가리켜 일개움(指摘)으로써, 조사선을 실천하여 곧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활로(活路)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직지』에서 제시하는 조사선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은, ‘祖師禪을 실천하면 3년 후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이면 반드시 깨친다[見性]’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確言) 있다.

여섯째, 『직지』의 편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지』에 편성된 ‘167個條’ 중에서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條들은 무려 ‘71個條’에 ‘86회’나 채택·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지』는 조사선 色·聲·言語 방편에 입각하여 見性한 사례들을 集大成한 책’이라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백운화상은 조사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직지』를 편성하였음’을 究明하였다.

요컨대, 白雲의 禪思想 특징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하는 祖師禪에 있다. 또한, 백운은 조사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직지』를 편찬하였다.

要語: 白雲和尚, 白雲景閑, 『직지』, 『白雲和尚語錄』, 祖師禪, 白雲의 禪思想

*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muyokss@hanmail.net)

투고일: 2023년 11월 16일 최초심사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6일

서지학연구, 제96집, 5-34, 2023. <https://doi.org/10.17258/jib.2023..96.5>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ideology of Seon (禪) presented by BaegunHwasang (白雲和尚) is again investigated, by analyzing *Jikji* (『直指』) and *Baegun Örok* (『白雲語錄』).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Baegun (白雲) developed the method of studying and practicing Seon presented by the founder through 'Saek (色) · Söng (聲) · Önö (言語)', based on the teaching that you should not leave 'Saek [appearance (形相), act (行爲)] · Söng [sound] · Önö [words, expressions (文句)]', if you want to realize 'the foundation of heart (心)', which cannot be seen nor heard by any means.

Secondly, 'MusimSeon (無心禪)', which has so far been considered the Baegun's ideology of Seon, and 'Baegun's munyeom (無念) · musim (無心)', discussed in terms of 'Musimseon (無心禪)' was originated from Hyeneung (慧能)'s Munyeom, Majo (馬祖)'s Musim, and Hwangbyeok (黃蘗)'s Jikhamusim (直下無心). These 'Munyeom · Musim · Jikhamusim' are the core concepts of ideologies awakened by those founders, and represent the foundation and actions of Seon ideology which could be realized through 'Saek · Söng · Önö'. In this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Munyeom · Musim' are the core contents, realized in Seon ideology, and 'Saek · Söng · Önö' are the means to practice Seon ideology. Therefore 'Munyeom · Musim' and 'Saek · Söng · Önö' are two faces of 'Enlightenment in Seon ideology', that is, the front side (contents) and the back side (practice) of Seon ideology.

Thirdly, In examining the very moment of Baegun's enlightenment (廓徹大悟: 見性, 1353.1.17.) in this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Baegun was all at once awakened by deeply appreciating a phrase [Önö], which abruptly came to his mind, while serenely sitting and meditating. It means that he was immediately awakened by means of 'Önö' out of 'Saek · Söng · Önö' of Seon ideology'. It was also confirmed that Seogok (石屋), Baegun's master, was awakened by means of landscape (風亭) ['Saek'], and he demonstrated the case of immediate enlightenment by 'Saek' out of 'Saek · Söng · Önö' of Seon ideology. Therefore, it became obvious that both Baegun and Seogok were awakened by 'Saek · Söng · Önö' of Seon ideology.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trend of Seon inherited from SeogokCheonggong (石屋清珙) to BaegunGyeonghan (白雲景閑) was Josa-Seon in which people could be awakened by means of 'Saek · Söng · Önö'.

Fourthly, Baegun, emphasizing 'Josa-Seon (祖師禪)' is never separated from 'Saek · Söng · Önö', the moments of listening to 'Söng' and seeing 'Saek' are the moment of Enlightenment, in his *Baegun Örok*'s Josa-Seon, etc., presented the way of proceeding to Enlightenment by practicing Josa-Seon.

Fifthly, The most important point of studying Josa-Seon is that the practice of Josa-Seon leads people to be definitely awakened in three or five years, and at the latest, ten years.

Sixthly, The analysis of *Jikji* demonstrated that more than 71 clauses out of 167 clauses in *Jikji* contained 86 cases of 'Enlightenment' by means of 'Saek · Söng · Önö' of Josa-Se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Jikji* was the compilation of cases of 'Enlightenment' by means of 'Saek · Söng · Önö' of Josa-Se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t is again confirmed that Baegun compiled *Jikji* to promote the ideology of Josa-Seon.

In brief, Baegun's Seon ideology is characterized with his emphasis on 'Enlightenment' by means of 'Saek · Söng · Önö' of Josa-Seon, and Baegun compiled *Jikji* to promote the ideology of Josa-Seon.

Key words: BaegunHwasang(白雲和尚), BaegunGyeonghan(白雲景閑), *Jikji*(『直指』),
BaegunHwasang Örok(『白雲和尚語錄』), Josa-Seon(祖師禪),
Baegun's Seon-ideology(禪思想)

1. 서론

「직지(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는 白雲景閑(1299~1374) 자신의 깨달음(見性)과 禪佛敎의 ‘直指人心 見性成佛’¹⁾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등록’·‘선문염송’ 및 역대 조사어록 등에서 제시되는 핵심 구절들을 채록하여, 도합 167條·2권으로 편성함으로써 禪의 精髓를 드러낸 禪書이다. 백운은 1372년 9월(陰)에 「직지」 편성의 跋文을 親筆로 남겼다. 「직지」는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쇄되었고,²⁾ 1378년에 취암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백운화상은 임제종(虎丘派) 18世 法孫 石屋清珙(1272~1352.7.24.(陰))으로부터 깨달음을 印可(1352.1.12.) 받았고, 석옥의 傳法偈(辭世頌)를 전하여 받음(1354.6.)으로써 임제종 19世 법손으로 嫡統 법맥을 계승한 宗師이다. 그런데 정작 「직지」에는 임제종의 宗祖 臨濟義玄(?~867), 看話禪의 확립자 大慧宗杲(1089~1163), 간화선의 鼻祖 五祖法演(1024~1104)과 관련한 條項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백운은 목판본 「직지」의 본문 총 37張 중 ‘7.5張’에 걸쳐 梁 誌公和尚(418~514)의 <大乘讚頌 十首>와 <十四科頌>을 송두리째 채택하고 있는 특징도 보인다. 또한 「白雲和尚語錄」에서 거론된 祖師와 古德의 文句들은 「직지」의 편성에 대부분 채택된 특징도 보인다. 그렇다면 백운화상이 「직지」를 편찬한 별도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인가?

종래 필자는 「직지」의 편성체계 등을 분석하면서, 백운의 禪思想을 ‘無心禪’이라는 구조(틀: frame)로 照明하여 연구하였다.³⁾ 그러나 「직지」의 콘텐츠(내용, 정보)에 관한 연구를 하는 도중에, ‘無心禪’이라는 프레임으로는 「직지」 167個條⁴⁾의 전체 편성에 대한 분석 및 저술 목적 등을 究明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認知하였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백운화상어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들을

- 1) ① ‘直指人心(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킴)’이라 함은 ‘지금 여기(her&now)에서 이것[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임으로써 ‘마음의 바탕(心體)’을 확인시켜 줌’을 의미한다. 마음(心)은 ‘道, 佛性, 如來藏, 眞如, 아뢰야식(제8阿賴耶識), 本來面目, 空, 순수의식, 背景自我’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② 禪에서 깨달음은 ‘以心傳心(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함)’이라는 전통이 말해 주듯이, 스승은 ‘直指人心’을 보여 가르치고, 여기에 제자의 發心이 기연(機緣)과 일치할 때 ‘見性成佛’이라는 깨달음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구도이다(김태완 (2001). 祖師禪의 실천과 사상. 합천: 장경각, 119-120.)
- 2) 唯一本인 금속활자본 「직지」의 書根題에는 “直指心經”이라고 표기(書寫)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대에서는 ‘직지심경’이라고 널리 지칭되기도 한다.
- 3) 김성수 (2021). 「직지」의 편성체계 및 무심선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86, 35-74. 이 연구에서는, ‘白雲의 無心禪은 馬祖·百丈·黃蘗에 의하여 성립된 無心修行法을 실천하여, 항상 無念(慧能의 無念)이 되면 마침내 見性(究竟覺)을 證得하는 禪法이다’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白雲의 禪思想은 大乘의 不二思想과 『起信論』의 ‘眞如·無念’ 및 ‘如來藏·佛性’ 사상 등에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최근 2~3년간의 공부에 의하면, 馬祖의 禪은 祖師禪이며, 또 馬祖는 ‘禪에는 修行을 필요치 않는다’라는 관점을 주목하고, 전면적인 再研究에 임하게 되었다.
- 4) 「직지」의 편성 내용을 ‘167條’로 구분한 것은 ‘無比 (2011). 직지 강설(상). 서울: 불광출판사, 8-13.’에 따름.
- 5) 그렇다고 해서, ‘백운 禪思想의 특징은 無心禪에 있다’라는 종래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기에 밝힌다. ‘無心禪은 分別이 떨어진 無心·無念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병욱 (2002). 백운의 선사상.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해안, 406)’이기 때문에, 종래의 연구 결과로는 백운이 깨달은 無心·無念의 경지를 ‘無心禪’이라는 要語 이외에 달리 그 어떤 용어로 대체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있다.

도출하고 요약하여 백운의 禪思想과 깨달음(見性) 등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둘째 백운의 선사상과 깨달음은 「직지」의 편성에서 어떤 흐름으로 일관적으로 관통(貫通)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논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백운이 「직지」를 편성한 목적 및 意圖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 「白雲和尚語錄」에 입각한 백운의 禪思想

본 장에서는 「백운화상어록」의 내용 중 그 핵심 구절들을 선별하여 ‘백운의 禪思想’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논술의 편의상 먼저 「백운어록」 중에서 백운 생애의 後期和 末期에 이루어진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백운의 禪思想을 導出하고, 이 사상과 ‘백운의 깨달음(見性)’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백운의 遺言 및 백운이 제시하는 선 공부(禪工夫)의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백운어록」에서 백운의 선사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① <興聖寺入院小説> 중 ‘제3법문’[1368], ② <洪武庚戌(1370)9월 15日, ‘功夫選에서 사람을 뽑으라(取)’는 분부를 받고 御前に 올린 글>, ③ <內佛堂 監主, 張老 天浩에게 부치는 글>[1372], ④ <祖師禪>’이라는 4개의 기록이 크게 주목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백운은 1368년(白雲 71歲)부터 說한 <興聖寺入院小説> 중 ‘제3법문’⁶⁾에서, “大道[마음]는 항상 눈앞(目前)에 있다. 비록 目前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道[마음]의 참된 바탕[모습](眞體)을 깨닫고자 한다면 ‘色[형상·행위]·聲[소리]·言語[말씀·文句]’를 떠나지 말라”⁷⁾라는 梁 誌公和

6) 白雲景閑. 侍子釋瓊錄. 興聖寺入院小説[第3法門]. 白雲和尚語錄(上). 韓國佛教全書 第6冊 (1990).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640中. 원문 번역: [白雲화상이] 上堂하여 말씀하시기를, “古人[梁 誌公和尚]이 말씀하시기를, ‘大道는 항상 눈앞(目前)에 있네. 비록 目前에 있기는 하지만 보기는(觀) 어렵네. 만약 道[마음]의 참된 바탕[모습](眞體)을 깨닫고자 한다면 ‘色[형상·행위]·聲[소리]·言語[말씀·文句]’를 떠나지 말라(不離).” [白雲은] 佛子를 곳곳이 세우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色[형상]이니, 바로 이것이 大道의 참된 바탕(眞體)입니다.” 그리고 禪床을 한번 내리치면서 [‘탕’ 소리], “이것이 ‘聲[소리]이니, 바로 이것이 大道의 眞體입니다. 老僧이 지금 입으로 중얼거리는 이 말이 ‘言語’이니, 이것이 바로 진리의 참모습(眞體)입니다. 이 老僧이 지금 이렇게 말한 뜻을 大衆들은 이해하시겠소? 만약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이 늙은이에게 별도의 다른 방편이 하나 있으니, 이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온갖 의심들을 말끔히 없애 드리겠소. 대중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오(大衆惺惺着)”라 말하고, “할(喝)!”하고 고함(高喊)을 한번 외치고 말씀하셨다. “알겠습니까(會麼)? 이 소리가 그냥 흔한 할(喝)을 한번 지르는 것이라... 하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단번에 의심(疑情)이 얼음 녹듯 풀려 正眼(바른 눈[眼目])이 확 트여야(豁開)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보고 듣는(見聞) 경지가 ‘諸佛의 妙體[오묘한 바탕]와 똑같이 보고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大道의 妙體는 형상(相: form)이 드러나지 않는 無相이라서 텅 빈 ‘空’이지만, 大神通光明의 기틀이 작용(機用)하고 있기 때문에 ‘不空’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또한 결정코 있기는(有) 하지만,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고(視之不見), 들으려 하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聽之不有) 공간적인 方位로써 그 있는 곳을 확정(定)할 수도 없고 시간(劫數)으로써 그 수명을 셀 수 없는 것이오> ...”// 여기에서 ‘< ... >’ 부분은 ‘마음의 바탕(體)’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즉,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의 正體’를 설명함.

7) ① 이 계송은 梁 誌公(418~514)화상의 시(偈頌)로, 「직지(下)」 東土第124條, <大乘讚頌十首> 중 ‘第1首의

尙의 계승을 들면서, ‘色·聲·言語’라는 祖師禪의 실천 방편 각각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핵심을 說破하고 있다. 이처럼 백운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大道의 妙體)’을 깨닫기 위하여, ‘色·聲·言語’ 방편을 통(通)하여 ‘마음 바탕(心體)’을 확인 [見性]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음이 특히 주목된다. 이러한 방안은, 아마도 馬祖의 “무릇 色[형상: 六境(바깥 경계)]을 보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스스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色으로 말미암아(因) 드러난다(有). …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色’이라 한다.”⁸⁾라는 「마조어록」에 제시된 ‘마음과 色’ 등에서 그 端初를 잡았을 것이라고 가늠할 수 있다.⁹⁾ 이같이 ‘色’을 비롯한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마음을 깨닫는 방안은 곧 ‘마음의 움직임(用)’과 바탕(體)¹⁰⁾ 등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백운은 마음 바탕(心體)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色·聲·言語’라는 祖師禪의 실천 방안을 발굴해 냄으로써,¹¹⁾ 마음(道)의 참된 바탕(眞體)을 깨달을 수 있는 活路를 열었다는 점은 참으로 경이(驚異)롭다.

2) 위와 같은 백운의 조사선 실천 思想은, 백운이 1370년(백운 73세)에 작성한 <洪武庚戌(1370)9월 15日, ‘功夫選¹²⁾에서 사람을 뽑으라(取)’는 분부를 받고 御前에 올린 글>¹³⁾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에

第1頌’이다. ② ‘色·聲·言語’: 백운은 <大乘讚頌(十首)>의 序頭에서 “... 만약 道의 참된 바탕(眞體)을 깨닫고자 한다면 ‘色·聲·言語’를 없애지 말라(大道常在目前 雖在目前難覩 若慾悟道眞體 莫除色聲言語)”(무비 (2011), 286) 참조.)라는 구절에서 이 ‘色·聲·言語’라는 용어를 發掘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馬祖道一. 示衆. 馬祖語錄. “凡所見色 皆是見心, 心不自心 因色故有. … 於心所生 卽名爲色.”(① 김태완 (2001), 192.) ② 퇴옹성철 (1994). 古鏡. 합천: 장경각, 247-248.) 이 부분은 「직지」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직지」 ‘東土15, 백장회해條 第2項에 ‘放下着’ 관련 구절이 채택되고, 第3項에 祖師禪을 배우는 데 있어서 ‘色·聲·言語’ 방편의 효용과 관련된 항목이 채택됨.

9) 김태완은 ‘色·聲·言語’에 대하여 ‘六根의 知覺을 이용한 祖師禪의 직접 표현 양상’이라고 하면서, ‘知覺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움직임[色]이 전부 佛性的의 작용이라고 馬祖는 말하고 있다’라 하였다. 또한 黃蘗希運의 『傳心法要』에서, “갈다고 말할 때는 一精明이지만, 나누어지면 六和음이 된다. 一精明은 一心이고, 六和음은 六根이다. 이 육근은 각각 대응하는 境界와 合하니, 눈은 色과 합하고, 귀는 소리(聲)와 합하고, 코는 냄새와 합하고, 혀는 맛과 합하고, 몸은 촉각과 합하고, 뜻(意)은 法과 합한다. 그리하여 그 사이에서 六識이 생겨나 十八界가 된다. 만약 이 十八界가 實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了), 六和음은 모두 一精明이 되는데, 이 一精明이 곧 마음(心)이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김태완은 ‘이처럼 六識으로 知覺되는 세계가 전부 一心의 드러냄[佛性的의 作用]이기 때문에, 지각이 가능한 어떤 행동이든 모두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見性的의 기연[機緣]으로 기능할 수 있다(김태완 (2001), 112-113.)”라고 하였다.

10) 體·相·用: 『대승기신론』의 ‘三大’.

11) 김상영은 이 부분을 指摘하여, ‘백운의 조사선에 대한 새로운 정의’(김상영 (1995). 백운화상.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민족사, 239.)라고 보고 있다.

12) 功夫選: 1370년 9월에 開京 光明寺에서 개최된, 당시 禪宗과 教宗을 통틀어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僧科 시험[지금의 高位職 국가고시에 비유된다] 이다. 이 시험에서는 공민왕이 직접 立會하고, 나옹화상이 主盟 [총감독관]을 맡았으며, 백운화상이 試官(시험관)이 되어 개최되었다.

13) 白雲景閑. 洪武庚戌九月十五日承內教功夫選取御前呈似言句.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6上-中. “저의 견해로는 사람의 공부를 시험하는 방편으로는 [A]‘話頭’와 [B]‘垂語’ 및 [C]‘色·聲·言語’가 있습니다.// [A] ‘화두’에는 ① ‘趙州의 無字’, ② ‘萬法歸一’, ③ ‘父母未生前[本來]面目’ 등이 있는데, 이런 화두는 큰 의심(大疑)이 있어야만 반드시 큰 깨달음(大悟)이 있으니,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마음길(心路)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 ‘수어’에는 ① <庭前柏樹子(뜰앞의 잣나무)>, ② <麻三斤(삼 서 근)>, ③ <乾屎橛(마른 똥막대기)> 등이 있는데, 이는 本分宗師[깨달은 큰 스승]들이 本分[깨달음]에 대하여 대답한 말(答話)들이니, 마치 活句[깨달

서 백운은 ‘승려(人)의 공부(功夫: 工夫)를 시험하는 데에는 ㉠ 話頭, ㉡ 垂語,¹⁴⁾ ㉢ 色·聲·言語, ㉣ 無心¹⁵⁾·無念이라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한다. 여기서 백운은, 첫째 ‘話頭’에 대해서는 ‘큰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수어’를 祖師禪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⁶⁾ 셋째 ‘色·聲·言語’方便에 대해서는 그 각각을 사례까지 들면서

음의 소식을 促進시키는 文句로써 大道의 근본(本)을 말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祖師禪입니다.// [C] 다음은 ‘色·聲·言語’를 갖춘 方便입니다. [c-1] 먼저 ‘色[형상·행위]’으로써 法을 보여 사람을 가르치는 方便으로는, ① 건추[桴: 桴椎; 桴稚. 원래 木製로 되어 있지만 ‘방울·북·목탁’ 등도 포함된다. 쳐서 울리므로 시각을 알린다]를 집거나(拈), ② 불자(拂子)를 세우는 것, ③ 눈썹을 치켜세우거나 눈을 깜박이는 것, ④ 주먹을 들어 보이는 것, ⑤ 울(葦: 성장한 명아주를 잘라서 건조 시켜 만든 지팡이)을 들거나(擧), ⑥ 주장자를 들어(起) 보이는 사례가 있으며, ⑦ 靈雲志勤[滄山靈祐(771~853)의 스승]이 북송아꽃을 보고 道를 깨달은 예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c-2] ‘聲[소리]’으로써 法을 보인 方便은 ① 주장자를 내리치며 ‘할(喝: 고향)’을 하는 것, ② 禪床을 세 번 두드리는 것, ③ 솔뚜껑을 세 번 두드리는 것, ④ 侍子를 세 번 부르는 것, ⑤ ‘문밖에 무슨 소리가?’ 하고 묻는 것, ⑥ [玄沙師備(835~908)가] 한 승려에게 ‘저 개울물(偃溪) 소리를 듣는가?’ 하고 물으니, 승려가 ‘듣습니다’ 하니, 현사는 ‘그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⑦ 香嚴[智閑(?~898)]은 [기왓장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탁’하고] 나는 소리를 듣고 즉각 마음을 밝힌 것 등이 그것입니다. [c-3.] ‘言語[말씀·文句]’로써 法을 보여 사람을 가르치는 方便으로는 ① 趙州(從諗: 778~897)가 한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다 먹었는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주는 ‘그러면 발우(鉢盂)를 씻게’ 승려는 이 말을 듣자마자 깨친[言下大悟] 경우입니다. ② 또 [天台德詔(891~972)國師가 法眼[文益: 885~958]을 모시고 있을 때, 한 승려가 법안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曹源[曹溪宗의 根源]의 물 한 방울입니까?’ 법안이 즉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曹源의 물 한 방울이다’라고 답하자, [법안선사의] 이 말끝에 [법안선사의 곁에 있던] 덕소국사가 크게 깨달았습니다(言下大悟).// [D] 또 가장 오묘한 方便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無心’ 또는 ‘無念’으로써의 方便입니다. [예컨대] ① 六祖[慧能]大師가 ‘一切의 善·惡 모두를 헤아리지(思量) 말라!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淸淨心)의 바탕(體)으로 들어가(得入), 깊고 고요하며(湛然) 항상 오묘한 작용(用)이 갠지즈강의 모래(恒河沙)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② 黃蘗[希運]禪師는 ‘道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곧바로 ‘無心’하지 못하면, 무수한 겁(劫)을 수행하더라도 끝내 쫄스러운 道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③ 張拙 相公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난다’라고 하였고, ④ 李文和 都尉는 ‘곧장 위 없는 보리로 나아가고 일체의 시비에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제시하여 가르치는 方便입니다(據我所見 驗人功夫者 或以話頭 或垂語 或以色聲言語.// 話頭則趙州無字 或萬法歸一 或父母未生前[本來]面目, 此如大疑之下 必有 大悟 如云‘心若無疑 心路不絕’故也.// 垂語則或庭前柏樹子 麻三斤 乾屎橛. 此本分宗師 本分答話 如活句道得大道本 此是祖師禪也.// 具色聲言語.// 以色示法示人 則或拈[桴]桴豎拂[子] 揚眉瞬目 豎起拳頭 舉筆舉起[拄]杖子 如因靈見雲桃花悟道是.// 以聲示法示人 則或行杖下喝, 敲禪床三下, 敲鼎蓋三下, 三喚侍子, ‘門外是什麼聲?’, [玄沙師備 禪師]‘還聞偃溪水聲麼’ 僧云‘聞’ 沙[師]云‘縱這裏入’. 如香嚴擊竹明心是.// 以言語示法示人 則趙州問僧 ‘喫粥了未?’ 僧云‘喫粥了’ 州云‘洗鉢盂去’ 其僧悟去. 又[天台德詔]國師 侍側法眼[文益]次 有僧問法眼 ‘如何是曹源一滴水?’ 法眼即答云 ‘是曹源一滴水’ [天台德詔]國師言下大悟.// 又有最妙一方便. 或以無心 或以無念. 如六祖云 ‘一切善惡都莫思量 自然得入淸淨心體 湛然常寂 妙用恒沙.’ 黃蘗[希運]云 ‘學道人若不直下無心 累劫修行終不成.’ 張拙相公云 ‘一念不成全體現.’ 李文和都尉云 ‘直趣無上菩提 一切是非莫管’.)”

14) 垂語: 禪師가 수행자의 역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

15) 無心: ① 백운이 사용하는 ‘無心’ 용어는 祖師禪의 완성자인 馬祖道一(709~788)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마조는 『馬祖語錄』에서 “마음이 부처이다(卽心是佛)”, “無心이 道이다(無心是道)”, “平常心이 道이다(平常心是道)”라고 하였다. 따라서 無心은 곧 平常心이며 또한 道이다. 마조는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造作이 없고, 是非가 없고, 取捨가 없고, 斷常이 없고, 凡聖(凡人과 聖人)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兩邊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경지, 즉 ‘中道, 不二’를 의미한다. 또한 馬祖는 “一念의 妄想이 곧 三界生死의 근본이니, 다만 一念妄想만 없으면 곧 生死 근본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妄想이 없는 마음’이 바로 ‘無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無心은 ‘分別·妄想이 없는 마음’이라고 정의한다. ② 돈황본『無心論』에서도 “無心이란 妄想없는 마음을 말한다(言無心者 卽無妄想心)”라고 하였다(퇴옹성철 편역 (1994). 無心論. 古鏡. 합천: 장경각, 735-736).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 방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글은 ‘功夫選의 試官을 담당하는 백운이 御前に 올리는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운의 ‘色·聲·言語’ 방편에 관한 관점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넷째 백운은 “또, 가장 오묘한 방편은 바로 ‘無心·無念’입니다”라 하며 네 번째의 방편을 제시한다. ‘無念·無心’의 경우, ‘① 六祖慧能(638~713), ② 黃蘗希運(?~850), ③ 張拙¹⁷⁾相公[9世紀 後期], ④ 李文和¹⁸⁾都尉[10세기 후기]’ 4人の 事例를 들고 있다. 이 중 ‘혜능의 無念’과 ‘황벽의 [直下]無心’ 두 경우만 살펴보면, ① 혜능의 경우, “일체의 善·惡 모두를 思量하지 말라(莫思量)!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淸淨心[眞如])의 바탕(體)¹⁹⁾에 들어갈(得入) 것이니, 깊고 고요하며(湛然) 항상 오묘한 작용(用)²⁰⁾이 갠지즈강의 모래(恒河沙)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체의 善·惡 모두를 思量하지 말라’는 것은 ‘思量·分別識(分別·妄想)이 제거된 마음, 즉 ‘無念’을 의미한다.²¹⁾ 이 文句는 『六祖壇經』(德異本)에서 ‘대유령에서 혜능이 惠明에게 준 法語²²⁾의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혜명은 혜능의 이 말끝에 즉각 깨달았던(言下大悟) 것이다. 또한 이는 ‘조사선에서 直指人心을 보이는 色·聲·言語 방편 중 ‘言語’ 방편을 통한 言下大悟이다. ② 황벽의 경우, “도를 배우는 사람은 곧바로 無心하지(直下無心) 못하면, 무수한 劫(劫)을 수행하더라도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한 부분을 들고 있다. 이 文句는 <「직지」(上) 中國禪師 ‘제16조 15항’>에 제시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만약 당장에 無心하지 못하면, 무수한 劫을 수행하더라도 끝내 쫄스러운 道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약 능히 당장에 無心하면(直下無心) 이것이 곧 究竟²³⁾이다”²⁴⁾라는 구절 중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이 文句는 황벽이 祖師禪을 실천하는 방편인 ‘直下無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혜능의 無念’과 ‘황벽의 直下無心’은 모두

16) 백운이 垂語의 사례로 든 ‘庭前柏樹子, 麻三斤’ 등은 현재 한국 看話禪의 수행에서 주요 話頭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당시의 問答에서 祖師들이 答할 때 ‘지금 여기(here&now)에서 곧바로 그대 마음을 보라’는 뜻으로 말한 ‘상징적인 말’, 즉 ‘格外語’라 볼 수 있다. ‘庭前柏樹子’ 등의 격외어는 보통의 의미로 보면, ‘엉뚱한 내용을 말한 것’이나 ‘넌센스 文句’처럼 보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지만, 이 혼란은 알음알이(知解)의 분별·망상으로부터 듣는 이(學人)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격외어는, 부처가 깨달은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禪旨’를 곧바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논리적인 표현인 直指人心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태완은 이와 같은 격외어를 “祖師禪 ‘直指人心’의 실천적 특성으로써의 ‘직접표현의 양상’의 하나(김태완 (2001), 74-78, 93-94, 109-114.)”로 보고 있다.

17) 張拙: 9세기 後期(五代·宋初)의 居士, 石霜慶諸(807~888)에게서 깨달음을 얻음.

18) 李文和: 10세기 後期인, 宋 太宗(976~997)의 駙馬都尉.

19) ‘體’: 『起信論』 三大(體·相·用)의 ‘體’[바탕]에 해당.

20) ‘用’: 『起信論』 三大(體·相·用)의 ‘用’[작용]에 해당.

21) 한편, ‘혜능의 無念’은 雜念이 없고 妄念이 없는 ‘正念’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 卓見이다.

22) [혜능은] “당신(惠明)은 여기까지 법을 위하여 왔을진대, 이제 모든 攀緣(攀緣: 속된 인연에 끌림)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可屏息諸攀緣 勿生一念), 그대를 위해서 말하리라.” 한참 있다가 혜능은 “善도 생각하지 않고, 惡도 생각하지 않는(不思善不思惡)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인가?”라 하니, 혜명이 그 말끝(言下)에 大悟하였다(六祖慧能. 광덕 譯註 (2011). 六祖壇經[德異本]. 서울: 불광출판사, 84.)

23) 究竟: 이것은 『大乘起信論』에서 제시하는 ‘究竟覺’을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즉 ‘마음의 본바탕을 완전히 깨달은(了達) 것’을 말한다. 究竟覺은 『기신론』의 ‘本覺, 眞如’와 相通한다.

24) 白雲景閑. 侍子 釋瓊 錄.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上)[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 목판본], 第26張2面. “又學道人 若不直下無心 縱經塵劫 不成聖道. 若能直下無心 便是究竟.”

‘祖師들이 건성한 핵심 내용 및 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곧 이것은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의 바탕(體)과 작용(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無念·無心’은 곧 조사선에서 깨닫는 핵심 콘텐츠[내용]이고, ‘色·聲·言語’는 조사선을 실천하는 방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無心·無念’과 ‘色·聲·言語’ 방편은 깨달음이라는 동전(銅錢)의 양면(兩面), 즉 ‘깨달음의 앞면(內: 내용)과 뒷면(外: 실천)’에 비유할 수 있다.

3) 백운은, 1372년²⁵⁾(백운 75세)에 <內佛堂 監主, 張老 天浩에게 부치는 글>²⁶⁾이라는 편지(書翰)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백운은 “... 비록 시방세계 두루 통하는 안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하여 모름지기 조사선을 뚫어야 하리(雖然已得通方眼 爲人須透祖師禪)”²⁷⁾라는 계송으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天浩가 고려불교에서] 宗旨의 가르침(宗教)을 드날리려면, 조사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백운은 『선문염송』의 한 구절을 거론하며, 道를 구하는 學人이 섭현귀성²⁸⁾에게 질문한 답변에서, ‘色·聲·言語 중 聲(祖師의 말씀[言語]과 빛소리[聲])를 통한 단박 깨달음(頓悟) 사례’를 들고 있다. 이에 학인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구절, 즉 “...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이 쉬어지는구나(當下心息)”²⁹⁾라는 계송에, 섭현귀성은 “그대는 조사선을 깨달았구

25) 편지의 첫머리에, “壬辰年(1352) 性覺寺에서 만난 뒤 20년(二十秋)이 지났다...”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6) 白雲景閑. 侍子 釋瓊 錄. 奇內佛堂監主張老天浩書. 白雲和尚語錄(下). 韓國佛教全書 第6冊, 667上. “... 비록 시방세계 두루 통하는 안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남(人: 衆生)을 위[濟度]하려면 모름지기 祖師禪을 꿰뚫어야 하리 ... / 자, 말해 보십시오! 祖師禪이 무엇인가?를. / ... 만약 대장노께서 禪佛敎 宗旨의 가르침(宗教)을 널리 드날리려면, 자기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깨달음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뒤덮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祖師禪을 깨닫는(會) 것이 매우 중요[緊]합니다. 『禪門拈頌』 11卷 26幅[421則], ‘葉縣[歸]省因僧請拈’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學人이 趙州[從諗](778~897)의 <뜰 앞의 잣나무> 話(頭)를 들면서 섭현[귀]성 화상께 법을 청하자, ‘내 그대에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은 없지만, 그대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학인이 말하기를, ‘화상의 귀중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성이 말하기를 ‘그대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학인은 이 말[言語]을 듣자마자 꿰뚫듯 크게 깨닫고豁然大悟 화상께 절을 올렸다(禮拜). 이에 화상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떤 道理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그 학인은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처마 끝의 빗방울 소리, 분명하고도 뚜렷하구나(歷歷), 하늘과 땅(乾坤)을 두들겨 부수고 나니,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이 쉬어지는구나!>. [귀]성화상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대는 祖師禪을 깨달았구나(會得)’라고 하였습니다. / 만약 장노[天浩]께서 이 公案을 철저히 꿰뚫지 못하였다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몸소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宗門을 선두에서 지키는(牙爪) 衲僧이 祖師禪을 파악(把握)할 수 있도록 눈썹을 아끼지 않고 당신[天浩]을 위해 한번 결단을 내겠습니다. ... (雖然已得通方眼 爲人須透祖師禪. / 且道! 作麼生是祖師禪? ... 若也大張老 播揚宗教 從自己胸襟流出 蓋天蓋地. 若不如是 要會祖師禪. 看取[禪門]拈頌十一卷二十六幅 葉縣[歸]省和尚 因僧請益 舉趙州庭前柏樹子話. [歸]省曰 我不辭與汝說 汝還信不. 僧云和尚重言爭敢不信. [歸]省曰汝還聞簷頭雨滴聲麼. 其僧豁然大悟 禮拜. [歸]省曰汝 見介什麼道理 禮拜. 其僧便以頌對曰 <簷頭雨滴 分明歷歷 打破乾坤 當下心息> [歸]省大忻然曰 汝會得祖師禪也. / 若也張老此公案上 未得透徹 不恥下問 枉垂相訪 宗門牙爪衲僧 巴鼻祖師禪 老僧不惜眉毛 爲君一決. ...).”

27) 白雲景閑. 白雲和尚語錄(下). 韓佛全 第6冊, 667上. “... 雖然已得通方眼 爲人須透祖師禪.”

28) 葉縣歸省: 10세기 후기 宋의 禪師. 南嶽懷讓(馬祖의 스승) 門下. 首山省念(926~993)에게 參學하여, 죽비(竹篋)를 보고 大悟함.

29) 이 구절은, 唯識說의 ‘心意識’에서 ‘識’(第6識: 分別識; 了別)과 ‘意’(第7識: 末羅識; 思量[妄想])가 모두 내려놓아 지고[放下着], ‘心’(第8識: 阿賴耶識; 集起) 중에서 眞如心(‘제8아뢰야식 중 微細 妄念까지 소멸한 상태의 淸淨한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들었기(聞) 때문에, ‘빗방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듣는 성품 그 자체가 바로 佛性이다[耳根圓通: 소리의 들음을 통해 참된 本性을 깨닫는 것].’라는 것을 즉각 깨달아, ‘그 소리의 本性을 보아 즉각 깨달았다

나(汝會得祖師禪也)”라고 하며, 그 ‘학인의 깨달음을 印可하였다’라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이는 祖師禪 실천 방법의 효과를 직접 제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조사선의 色·聲·言語 실천 방법은 깨달음(見性)을 이루는 데 가장 신속·정확한 활로(活路)’라는 점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위의 편지가 작성된 ‘1372년’은 백운의 생애(1299~1374) 중 末期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백운이 「직지」의 편성을 완료하고 그 跋文을 쓴 年度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 ‘모름지기 祖師禪을 뚫어야 한다’라는 백운의 주장과 관점은 「직지」의 편성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또한 백운이 그의 생애 말기까지 굳게 지켰던(堅持) 禪思想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백운 禪思想의 특징은 色·聲·言語 방법을 통한 祖師禪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

4) 「백운어록」 上卷 뒷부분에 <祖師禪>³⁰⁾이라는 제목의 독립된 글(章)이 있다.³¹⁾ 즉,

‘...’³²⁾. 또 [梁나라] 誌公(418~514)화상은, ‘大道(마음)는 항상 目前에 있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만약 道[마음]의 참된 바탕(眞體)을 깨닫고자 한다면, ‘色[형상·행위]·聲[소리]·言語[말씀·文句]’를 떠나지 말라’고 하였다./ 또 先德은 ‘色·聲을 떠나지 않은 채 부처의 神通力을 보라!’라고 하였다. 또한 ‘부처님 가신 곳을 알고 싶은가? 이 말과 소리(語·聲)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言句들을 살펴보면 곧 그것이 禪旨[禪의 宗旨]이다. 祖師禪은 色·聲·言語를 떠나지 않는다. ‘庭前柏樹子, 麻三斤, 乾屎橛, 神前酒臺盤’³³⁾ 등 本分宗師³⁴⁾들이 本分에 따라 대담한 말(本分答話)들은 모두 色·聲·言語를 갖추었으니, 이것이야말로 眞正한 祖師禪이다. 그러므로 ‘한 마디(一句: 깨달음) 말을 하고 싶다면 세 마디(三句)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僧[學人]이 道吾圓智[769~835]禪師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강남땅 이삼(二,三)월의 풍경을 떠올려 보자니(遙憶), 자고새가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로왔다네!’ ... 이러한 言句들은 모두 祖師禪으로서 色·聲·言語를 갖춘 사례이다. / 宗師들 중, 어떤 이들은

(見性)’라고 볼 수 있다.

- 30) 白雲景閑. 祖師禪.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3下-654中. 이 글에서는 ‘章(글)을 作成한 時期’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 글은 「백운어록」(상권) <홍성사입원소설>의 끝부분에 접속되어 있고, 1372년(75세)에 작성된 <內佛堂 監主, 張老 天浩에게 부치는 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章(글)은 홍성사 住持에 취임한 ‘1368년 무렵’부터 ‘1370년, 功夫選의 試官 무렵’ 및 ‘1372년, <天浩에게 주는 편지>를 작성한 무렵’에, 당시 고려 불교계의 현황과 관련한 백운의 견해를 정리한 글이라고 추정된다.
- 31) 이 글은 그 첫머리에 “大慧和尚「宗門武庫」云”이라 하였다. 즉 大慧宗杲(1089~1163)의 「宗門武庫」에서 그 일부를 轉載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직지」의 편성에서는 ‘대혜종고’條는 보이지 않고, 看話禪과 관련된 條項은 더더욱 단 1條도 채택되지 않았다.
- 32) ‘...’: <祖師禪> 章의 첫머리에는, 圓悟克勤(1063~1125: 「碧巖錄」의 저자)화상이 五祖法演과의 소리(聲: 小炎詩)에 대한 토론 끝에, 법연은 원오에게 ‘庭前柏樹子’(垂語)를 제시한다. 이에 圓悟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大悟하자, 오조법연은 이를 점검한 후, 山中의 장로(耆舊)들을 두루 청하여 “내 侍子[원오]가 祖師禪을 참구하여 깨달았습니다(我侍子 參得祖師禪也!)”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인상 깊게 묘사되고 있다. 이 부분은 「직지」(下) 中國禪師 第115, ‘원오극근’條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직지」에는 조사선을 參究하여 깨달은 사례가 不知其數로 제시되고 있다.
- 33) ‘庭前柏樹子, 麻三斤’ 등: 현재 禪佛敎에서 ‘趙州의 無字’와 함께 즐겨 話頭로 삼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庭前柏樹子, 麻三斤’ 등의 本分答話는 이른바 ‘格外語[格式(frame)을 벗어난 말]’이다. 즉 여기에서 ‘麻三斤’이란 통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인지되는 ‘삼(麻)이 서 근이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 祖師의 答話를 굳이 해설하여 말로써 표현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here&now) 그대의 本來面目을 보라’, 즉 ‘그대 마음을 돌이켜서 비추어 보라(廻光返照)’는 말일 것이다. 백운은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祖師禪’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 34) ‘本分’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職分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本分宗師’는 禪에서의 궁극 목적인 ‘깨달음을 가르치는 큰 스승’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言語(말씀)로써 법을 보여 사람을 가르치고, (趙州가 학인에게 물었소. ‘아침은 먹었는가?’ ‘먹었습니다’ ‘말우나 씻어라’ 이 말에 학인은 깨달았소. 雲門文偃과 洞山守初와의 問答: ‘요즘 어디 있다 왔는가?’ … ‘이 밤통아! 강서로 호남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나?’ 동산이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言下大悟.) / 어떤 이들은 言·聲(말씀·소리)으로써 법을 보여 사람을 가르쳤으니, (玄沙師備가 학인에게 물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들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 鏡清道愆가 학인에게 물었다. ‘문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가?’ ‘빗방울 소리입니다’ ‘중생이 顛倒되어 자기를 잃고 밖의 對象을 좇는구나’ / 어떤 이들은 聲(소리)으로써 법을 보여 사람을 가르치니 (까마귀·까치·나귀·개의 울고 짖는 것이 모두 여래의 법륜 굴리는 소리이다. 제비는 實相을 깊이 얘기하고, 찌꼬리는 般若를 잘 말(說)한다. 또 ‘두견새는 하늘에 당도록 피를 토하며 밤새 울어서 圓通門이 활짝 열렸거늘, 구름·진흙[分別·妄想]은 무슨 까닭에 [길을] 막고(隔) 있는가?’). / 또 어떤 이들은 色·聲(행위·소리)으로써 (건주를 잡거나 拂子를 세우고, 손가락을 튕기거나 눈썹을 치켜뜨고, 몽둥이(棒)를 들거나 ‘할(喝) 고함’을 하는 등) 이러한 갖가지(種種) 작용이 모두 祖師禪이다. 그러므로 ‘소리(聲)를 듣는 때가 깨달는(證) 순간이며, 色(형상·행위)을 보는 때가 깨달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靈雲[志勤]이 ‘色[桃花]을 보고 깨달은 것, 香巖[智閑]이 ‘聲’(瓦礫[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나는 소리)을 듣고 깨달은 것, 雲門[文偃(864~949)]이 다리를 다쳐 아파하다가 깨달은 것, 玄沙[師備(835~908)]가 발가락을 다쳐 통증을 느끼다가 깨달은 것 등의 機緣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자면 결국 하나(祖師禪)이다.³⁵⁾

라고 하여, 백운은 祖師禪에 관한 본인의 확신(觀點)을 정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조사선은 色·聲·言語를 떠나지 않는다(祖師禪不離色聲言語)’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은 “소리(聲)를 듣는 때가 바로 깨달는(證) 순간이며, 色[형상·행위]을 보는 때가 바로 깨달는 순간이다”라고 하였다. 이같이 백운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通)한 祖師禪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특히 주목된다. 무엇보다 백운이 제시하는 祖師禪은 ‘스승과 제자의 禪問答 등에서, 스승은 色·聲·言語를 활용하여 直指人心을 보여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즉각 깨달는다(言下大悟)’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백운어록』에 제시된 백운의 禪思想을 도출하여 보았다. 요컨대, ‘白雲의 禪思想 특징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通)한 祖師禪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백운의 禪思想과 ‘백운의 깨달음(見性)’과의 관련성 與否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백운은, ① 1351년 5월 17일(陰)에 湖州 霞霧山 天湖庵에 당도하여, 이 암자에 주석하는 석옥청공(1272~1352.7.24.)과 법거량(法舉量)에 들어간다.³⁶⁾ 法을 印可받지 못한 백운은 석옥에게 ‘감사의 계승³⁷⁾을 올리고 하직한다. ② 하루산을 내려온 백운은 곧바로 燕都(北京) 大憫忠寺[清代 法源

35) 白雲景閑. 祖師禪.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3下-654中. “… 又寶誌公云, 大道常在目前 雖在目前難觀. 若欲悟道真體 不離色·聲·言語! 又先德云, 亦不離色聲 見佛神通力. 又云, 欲知佛去處? 只這語聲是. 此等言句 看之則禪旨. 祖師禪不離色聲言語. 庭前柏樹子 麻三斤 乾屎橛 神前酒臺盤 本分宗師 本分答話 具色聲言語 正是祖師禪也. … 或以言聲是法是人者 … 或以聲是法是人者 … 或以色聲示法示人者 … 行棒下喝 種種作用 皆是祖師禪. 故云聞聲時證時 見色時證時. 則靈雲從色悟入 香巖從聲悟入 … 良遂稱名一也.”

36) 白雲景閑. 釋攢(錄). 至正辛卯(1351)五月十七日師詣湖州霞霧山天湖庵呈似石屋和尚語句. 白雲和尚語錄(下). 韓佛全 第6冊 (1990).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656上-657上. 白雲이 석옥과 법거량한 주제는, ① ‘風動幡動’의 문제를 거론했으나, 석옥은 ‘참마음(真心)은 움직이지 않는다(不動)’ 하였다. ② 백운은 『금강경』의 空 등으로 마음을 비추어 볼 때, ‘諸法은 眞心(참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으나, 석옥은 ‘相(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하였다. ③ ‘趙州의 無字’의 문제를 거론했으나, ‘師默決(스승[석옥]은 침묵(默)으로 매듭지었다(決)).’

寺]에 체류하는 天竺僧 指空禪賢(?~1363)을 찾아간다.³⁸⁾ 指空을 친견(1351[늦여름 추정])한 백운은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것과 ‘無心の頓悟’를 가르쳐 줄 것을 간청한다.³⁹⁾ 이에 지공의 자세한 설법과 세 차례의 큰 법(三去大法)을 듣고, 백운은 자신의 공부[깨달음] 경지를 계승으로 남긴다[初見性].⁴⁰⁾ ③ 1352년(壬辰) 정월 초순에, 백운은 석옥화상을 다시 찾아뵙고 아침저녁으로 여쭙어 의심을 풀게 된다. 1월 12일에, 백운은 드디어 ‘無心·無念의 眞宗[참된 宗旨]’에 은밀히 계합한다[大悟]. 平床에서 내려와 삼배(三拜)하고 깨달음의 기쁨을 스승께 전하자, 석옥은 백운의 見性を 점검하고, 세 번이나 찬탄의 확인 말씀과 함께 印可하였다. 이에 백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깊이 믿게(信) 되었다. 백운은 이로부터 이틀 밤을 더 머물면서 충실하게 마음(깨달음)을 논한 뒤에 1352년 정월 보름날 밤에 스승과 울면서 하직하게 된다.⁴¹⁾ ④ 귀국 후, 백운은 1352년 4월 8일부터 개경 남문 밖 性覺精舍에서 대중들 속에서 無心·無爲로써 끊임없이 정밀하게 공부를 길러나간다. 그리하여 “癸巳年(1353) 1월 17일 정오(午時) 무렵, 端坐 중 永嘉大師의 「證道歌」 중에서 “妄想을 없애지도 말고 참됨(眞)을 구하지도 말라, 無明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佛性이요, 허깨비 같은 허망한 몸(幻化空身) 그대로가 法身이다”⁴²⁾라는 말씀(詩句: 文句)이 떠올라, 이 文句⁴³⁾를 깊이 음미하자 홀연 無心이 되었다.⁴⁴⁾ ‘...’⁴⁵⁾”⁴⁶⁾ 백운은 바로 이때 확철대오(廓徹大悟)한 것이다. 즉, 백운은 祖師

37) 白雲景閑. 至正辛卯(1351)五月十七日師詣湖州霞霧山天湖庵呈似石屋和尚語句. 백운어록(下). 韓佛全 第6冊, 657上. “呈偈曰, ‘八千餘許里~清白妙難名’”

38) 천축승 지공화상은 ‘1326년 3월’에 고려 開京 甘露寺에 당도하여, 2년 7개월 동안 전국을 순례하였다. 금강산 楡岾寺를 비롯하여 通度寺·尙州 四佛山[潤筆庵]·全州 華巖寺·檜巖寺·神勒寺 등을 방문하였고, 순례지 또는 지공이 住錫하였던 개경 崇壽寺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법회 때, 백운이 이러한 법회에 참석하여 설법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지공에 관한 상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렇지 않고는 백운이, 석옥과의 법거량 이후, 곧바로 지공이 체류하는 북경으로 달려가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9) 白雲景閑. 辛卯年[1351]上指空和尚頌. 백운어록(下). 韓佛全(6), 659上-中.

40) 白雲景閑. 聞和尚曲說法伊及三去大法故復作七偈呈似. 백운어록(下). 韓佛全(6), 659中-下. 이 계승은 初見性의 悟道頌이라 볼 수 있다. 계승의 시작에 “只這平常心是佛(다만 이 平常時의 마음이 부처이니)…”라 하였다. 즉 깨달은 마음은 중생의 마음(衆生心) 그대로였음에 ‘平常心’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馬祖의 ‘平常心是道’와 밀착(即)되어 있으며, 또한 백운의 初見性은 馬祖의 ‘無心是道’와도 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41) 白雲景閑. 師於癸未正月十七日記霞霧山行示同菴二三兄弟. 백운어록(下). 韓佛全(6), 657上-中. 백운은 하무산 하산 후, 紅巾賊의 발호로 수로와 육로가 막혀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3월 중순에 바다를 건너, 1353년 3월 22일에 고려에 귀국한다.

42) 上揭註, 657中.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即佛性 幻化空身即法身”

43) 이 文句(言語)는 바로 ‘깨달음의 端初’를 의미한다. 이른바 ‘色·聲·言語’ 중에서 ‘言語[文句]’를 지칭한다.

44) ① 여기에서 ‘홀연 無心이 되었다’ 함은 곧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② 이 문장 뒤 ‘...’ 부분은 백운의 깨달았을 때의 狀況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조사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悟道頌만 남기는 경우가 흔한데, 백운은 자신의 깨달음 상태를 이처럼 如實하게 표현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45) ‘...’ 부분: “一念(한 생각: 妄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지면서(前後際斷)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자, 깊고 고요(冥然)한 경지에 이르렀다. 문득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하나의 自己일 뿐, 몸과 마음은 하나(心身一如)로서 몸 밖에 따로 山河·大地, 明·暗, 色·空, 凡·聖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았다(明見). 몸과 마음(身·心)이 사라지자(泯然自盡) 저절로 평등을 다하게 되고, 그 평등이 뚜렷한 밝음(圓明)과 혼연일체를 이루니, 無心の 힘이 작용하면서 전체가 고스란히 드러나(現成) 정수리부터 밑바닥까지 꿰뚫었으며(透頂透底)古今을 모두 초월하였다. [마음의 根源을 깨닫고 나니, 마음은] 본래부터 움직인 바가 없었으며, 지금에 와서 비로소 고요해진 것도 없으니(本無所動 今無始寂), 평등하고 평등하여 처음부터 본래 다르지 않았다.// 이 일(此事)은 말이나

禪의 실천 방안인 ‘色·聲·言語’ 중 ‘言語[말씀·文句]’를 통하여 見性한 것이다. 진리를 설하는 영가대사의 詩句[言語(말씀)·文句] 끝에 곧바로 깨달았으므로, 이른바 ‘말씀[言語·文句]’ 끝에 크게 깨달은 ‘言下大悟⁴⁷⁾’라 할 수 있다. ⑤ 1354년(甲午) 6월 4일에, 석옥청공의 門人인 法眼禪人이 하무산에서 배를 타고 고려로 건너와서 [석옥화상의] 편지 한 통을 모셔와 백운에게 건네주었다. 석옥이 백운에게 남긴 辭世頌(傳法偈)⁴⁸⁾이다. 이에 백운은 6월 14일에 해주 안국사에서 재(齋)를 베풀고, 가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석가세존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인 무상법보(無上法寶: 法脈)가 백운에게 자연스레 이르게 된 것을 선언한다.⁴⁹⁾

2) 한편, 백운화상의 見性을 印可해 준 임제종의 법손(宗師) 石屋清珙의 견성 기연(機緣)을 살펴 보면, 석옥은 1292년(20세)에 출가하여, 高峰 화상으로부터 ‘萬法歸一’ 화두를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及菴宗信⁵⁰⁾을 찾아가 法을 구한다. 석옥이 급암을 뵈자, 급암이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住) 말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급히 달려 지나가라(有佛處不得住 無佛處急走過)’는 뜻을 그대는 어떻게 보는가?(意旨如何)[垂語]”라고 묻자, 석옥은 대답을 하였으나 맞지 않았다. 이에 석옥은 급암의 會上에서 6년간 공부하였으나 끝내 급암이 물었던 뜻에 답하지 못하고, 급암의 꾸짖음을 듣자, 석옥은 분한 마음이 나서 급암을 떠나가다가, 길 가던 중 문득 머리를 들어 風亭[色]을 보고 활연히 깨달았다(途中忽舉首見風亭 豁然有省). 돌아와 급암에게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도 죽은 글귀(死句)이고, ‘부처가 없는 곳에도 급히 달려 지나가라’라는 것도 死句였습니다. 저는 오늘에 活句를 알았습니다”라고 고하자, [급암이] “그대는 어떻게 알았는가?”의 물음에, [석옥은] “清明의 시절에, 비가 그치고 처음으로 개일 때, 누런 피꼬리가 가지 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清明時節雨初晴 黃鶯枝上分明語)”라고 답하였다. 이에 급암은 석옥의 깨달음을 인가하였다.⁵¹⁾ 이 대답은 祖師禪에서 ‘한 마디(1句)를 말하려면 세 마디(3句)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데 대한 모범적인

문구(言句)에 있지 않고, 根(六根)과 塵(六塵)을 멀리 여의었으며(迥脫根塵), 안팎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 그 바탕(體)이 참되고 영원함(眞常)을 드러내고 있으며, 담연히 응적(凝寂)하여 그 妙한 작용이 恒沙처럼 無數함을 깊이 믿게(深信) 되었다. … [스승께서] 당시 나에게 ‘無念眞宗’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大解脫이 있었겠는가! ‘無心’이란 한 마디(一句)는 수없는 方便을 뛰어넘는 것이니 …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 無心을 통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나처럼 證得하기를 원함시오. …(白雲景閑. 師於癸未正月十七日記霞霧山行示同菴二三兄弟. 백운어록(下). 韓佛全(6), 657中-下.)”

46) 上揭註, 657中-下.

47) 이와 같은 ‘言下大悟’는 祖師禪의 실천 중 가장 큰 특징이다. 『六祖壇經』에서는 ‘言下便悟(말씀 끝에 즉각 깨달음)’라 하였다. 같은 말이다.

48) 辭世頌은 이러하다. “흰구름(白雲: 白雲景閑을 지칭) 모두 사그 맑은 바람[淸風: 石屋清珙] 팔았더니, 집안 사사로움(家私) 모두 흩어져 뺄속까지 가난하구나. 한 칸 띠풀 집은 남겨 두었으니, 떠나려는 이 순간 병정동자(丙丁童子)에게 전해 주노라(白雲買了賣淸風 散盡家私澈骨窮. 留得一間茅草屋 臨行付與丙丁童.).”(白雲景閑. 백운어록(下). 韓佛全(6), 654下.).

49) 上揭註, 658上-中.

50) 급암종신: 임제종 虎丘派의 宗師. 仰山祖欽(1215~1287)에게 참학하여 法을 이어받음. 그의 법은 석옥청공과 平山處林에게 이어졌다. 석옥청공의 法은 고려의 태고보우와 백운경한에게 전해지고, 평산처림의 법은 고려의 나옹혜근에게 전해짐.

51) 元旭 讚, 福源石屋清珙禪師塔銘. 이영무 譯 (2000). 석옥청공선사 語錄. 서울: 불교춘추사, 187-188. 原文: 40下-41上.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석옥은 조사선의 ‘色·聲·言語’ 방편 중 ‘色’(風亭)을 통한 見性(깨달음) 과정을 거쳤음(깨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옥이 급암으로부터 法(깨달음)을 인가받은 것은 바로 祖師禪法에 의한 見性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석옥의 견성은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깨달음’의 증득 과정을 깨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석옥청공은 자신의 깨달음 및 급암종신으로부터 法을 계승한 임제종의 祖師禪風을 白雲景閑에게 傳法하였음을 파악하였다.⁵²⁾ 따라서 백운은 석옥으로부터 임제종의 정통 祖師禪을 계승한바 ‘임제종(호구파)의 19代 宗師’임을 파악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백운경환과 석옥청공의 見性은 바로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조사선의 깨달음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백운이 계승한 祖師禪에서 1) ‘마음의 正體’에 관한 문제, 2) ‘조사선의 공부법’, 3) 백운의 ‘임종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운은, 1368년부터 法門한 <興聖寺入院小説>⁵³⁾ 중 ‘제71법문’에서 “무릇 마음은 스스로의 모양(相: 형상; form)이 없어서 경계(對象)에 의탁할 때에만 나타난다. 경계의 성품도 본래 비어 있지만(本空)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六根(인식기관)과 六塵(인식대상)이 화합할 때 마음(緣心)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안팎을 헤아려 볼 때 무엇이 그[마음] 바탕(體)인가? 마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안의 마음(內心)과 바깥의 경계(外境)는 단지 하나(一箇)일 뿐이니, 결코 둘(兩橛)로 나누어 보아서는 아니 되오. 이 때문에 祖師께서도 ‘경계(境緣)에는 좋고(好) 나쁜(醜) 것[分別]이 없으니, 그것(分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에서 억지로 이름(名)을 붙이지 않으면, 허망한 情(妄情: 分別)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허망한 情(分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마음(眞心)은 두루 알게 될(任徧知) 것이다’ …”⁵⁴⁾라 하여, ‘마음의 참모습(正體)’를 설파하고 있다.

2) <興聖寺入院小説> ‘제64법문’⁵⁵⁾에서, 백운은 ‘오직 밖으로 향하는 意識을 廻光返照하여, 마음

52) 목판본『직지』(1378)의 성사달(成士達, ?~1380) 및 이색(李穡, 1328~1396)의 序文에 의하면, [1352년 1월 15일에 백운화상은 석옥청공과 이별할 때] ‘手寫本(筆寫本)『直指心體要節』 1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手寫本은 祖師禪에서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깨닫는(확철대오) 비결 및 핵심 등을 노트(note)한 자료(책)일 것이라고 推定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백운이 석옥으로부터 ‘무심·무념의 眞宗’을 印可 받아 고려에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운은 곧바로 자신의 法을 펼치지 않고, 1352년 4월 8일부터 개경 인근 性覺精舍에서 9개월 이상 大衆들 속에서 無心·無爲로써 끊임없이 정밀하게 공부를 길러나갔으며, 1353년 1월 17일에 백운은 드디어 『중도가』의 한 文句[言語]를 통한 확철대오를 체험한다. 이로 보면 석옥청공은, 백운의 깨달음(法)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白雲의 그다음 祖師禪法 공부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확철대오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豫測), 이에 석옥은 자신의 임종(1352.7.24.)에 즈음하여 백운에게 傳法하는 辭世頌(傳法偈)을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가, 석옥의 입적 이후 고려의 백운에게 [法眼禪人을 통하여] 전하라고 당부하였을 가능성(蓋然性)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할 문헌(書誌)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정도의 추정만으로 그친다.

53) 백운화상은 1368년에 공민왕의 칙명으로 노국공주의 願刹인 <興聖寺>의 住持[지금의 方丈 개념]로 취임하였다. <興聖寺入院小説>은 백운의 흥성사 주지 재임 때에 설법한 法語·法門들이다.

54) 白雲景閑, <興聖寺入院小説>[第71法門],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2下. “示衆云, 夫心無自相託境方生. 境性本空 由心故現. 根塵和合 似有緣心. 內外推之 何是其體. 當知內心外境 只是一箇 切忌分作兩橛看. 不見祖師云 ‘境緣無好醜 好醜起於心. 心若不強名 妄情從何起. 妄情既不起 眞心任徧知.’ …”

55) 白雲景閑. 興聖寺入院小説[第64法門].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2中-下. “그대들은 각자 廻光返照하여 오로지 근본(本: 心體; 마음 바탕)을 깨닫는(達) 것이 중요하오, 지말(末: 枝末)을 좇아서는 아니 되오. [大梅法

의 근본(本源: 佛性)을 비추어 보아(照見) 곧바로 깨달음(了達)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백운은 <홍성사입원소설> '제62법문'에서, “參學[깨달음의 공부]을 하는 데에는 ‘話頭에 대하여 반드시 질문하고(問話)⁵⁶⁾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참학이요. 화두에 대하여 是非를 가려내어 자신의 견해를 밝힐(諫話)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참학이요. 반드시 代語⁵⁷⁾ · 別語⁵⁸⁾ · 澄心默照⁵⁹⁾와 경전을 공부하거나 論 · 疏를 지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참학이요. …”⁶⁰⁾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당시 백운은 問話[頭] · 諫話[頭], 즉 看話禪이나 默照禪 등 보다 ‘백운이 새롭게 정의한 祖師禪’⁶¹⁾ 즉 ‘色 · 聲 · 言語 방편을 통한 깨달음’을 더 重視하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⁶²⁾ 그리하여 백운은, “진실한 공부와 참된 깨달음(實參實悟)은, 일상생활(行住坐臥) 중에서 生死大事를 생각하되 心意識⁶³⁾을 여윈 채 부처의 길(聖路)을 참구해야 하며, 無心과 無爲⁶⁴⁾로써 배우고 면밀하게

常(752~839)]祖師께서도 ‘오직 근본만 얻는다면 그 말단은 저절로 이른다’고 하지 않았소? … 그대들이 근본에 이르고자 하면 오직 本心(근본 마음: 法性, 如來藏, 佛性, 心地[마음자리])만을 깨달으시오(了). … / 그러므로 『범망경』 <心地法門品>에 ‘이것[마음]은 모든 부처의 本源이요, 菩薩道를 행하는 根本이요, 모든 佛子들의 根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이 마음을 떠나서는 法도 없소.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이니, 부처로써 부처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마음 그대로가 法이니, 法으로써 법을 구할 수는 없지 않겠소? 부처(佛)와 법(法)이 둘이 아니니, 僧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示衆云. 汝等諸因 各自迴光返照 要須達本 莫逐其末. 祖不云乎 ‘但得本其末自至.’ … 汝等若欲達本 唯了本心 … 故梵網[經]心地法門品云 ‘是諸佛本源 故云佛性 行菩薩道之根本 是大衆諸佛子之根源.’ 離此心無佛 離此心無法. 心即是佛 不可將佛求佛. 心即是法 不可將法求法. 佛法無二 僧寶亦然.)”

- 56) 여기에서 ‘話’는 話頭의 줄임말이다. ‘看話禪’이라 할 때 ‘話頭을 看(參究)하는 禪’이라는 관점과 같은 맥락.
 57) 代語: 公案에 대하여 스승이 대신 해석하는 것.
 58) 別語: 古則의 말 외에 달리한 말을 내놓는 것. 즉 이미 제시된 한 방법과 다른 측면에서 그 문답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로써 평하는 것.
 59) 澄心默照: ‘마음을 맑혀서 묵묵히 비추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默照禪으로 추정된다.
 60) 白雲景閑. 興聖寺入院小説[第62法門].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2上. “示衆云. 夫參學事 作麼生. 參學者 不必問話是參學也, 不必諫話是參學也, 不必學別語是參學也, 不必看經教是參學也, 不必造論討疏是參學也, 不必遊州獵縣是參學也, 不必避喧求靜是參學也, 亦不是學心外照 澄心默照是參學也. 若於如是等事 任你七通八達 於參學事 了沒交涉. 故云聰明不能敵業 乾慧未免生死./ 若也眞實參學者 參須實參 悟須實悟. 始得且作麼生是實參實悟耶./ 於二六時中 四威儀內 以生死大事爲念 離心意識參出凡聖路. 學以無心無爲 綿密養之 常常無念 常常不昧 了無依倚 至冥然地 自然合道. 不見古人云 無心方見本來人.”
 61) 백운의 조사선에 대한 정의는, 전통적인 해석을 계승하면서도 자기의 새로운 견해를 첨가한다. 禪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如來禪’과 ‘祖師禪’으로 나누고, 여래선이 조사선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백운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며, ‘祖師禪은 色 · 聲 · 言語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의 새로운 정의를 첨가하고 있다(① 김상영 (1995), 239, ② 이병욱 (2002), 416.)’ 이러한 연구들에 공감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記述되는 ‘백운의 祖師禪’은 ‘色 · 聲 · 言語 방편을 통한 祖師禪’이라는 개념으로 記述함을 여기에 밝혀 둔다.
 62) 백운이 興聖寺에 주석하였던 1368년 前後 당시 고려 불교계의 상황을 개괄하면, 1350년에 나옹혜근(1320~1376)은 蒙山法語(1231~1308)의 『蒙山法語』를 유포시켰다. 또한 태고보우(1301~1382)는 석옥청공의 법을 받아들였으며, 귀곡(1348) 후에는 다시 看話禪(無字話頭)으로 돌아선 영향으로 인하여, 당시 고려의 禪佛敎가 간화선 위주로 흘러갔던 경향에 대하여 白雲이 몹시 우려한 데서 基因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더 이상의 禪佛敎 思想 관련 문제의 언급은 중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書誌學 논문이기 때문이다.
 63) 心意識: <唯識說>에서 ‘心意識’은 ③ 심(心[本性]), ② 의(意), ① 식(識) 세 단어의 복합어이다. ① 識: 외부 境界(對象)와 六根이 만나면 第六識인 分別識[사물 등을 분별하는 認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識’이라 한다. ② 意: 梵語 ‘manas’의 번역어로 ‘말나식(末那識: 말라식)’이라 音譯하며, ‘思量’을 뜻한다. ‘第七識’이라고 불리는 思量識은 제6식에서 분별 된 판단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헤아리는[思量] 작용을 말한다. 思量識이 일어

길러나가 항상 無念[妄念이 없음]이 되고 항상 어둡지도 않다면(不昧), 마침내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그윽한 자리(冥然地: 究竟覺)에 이르게 되어, 道와 合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無心이라야 비로소 本來人[本來面目]⁶⁵⁾을 본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공부야말로 ‘祖師禪의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白雲和尚은 臨終(1374) 때 제자들에게 “... ‘모든 것(一切)은 空’이라는 이치를 언제나 알아차리고(常了), 하나의 法이라도 情⁶⁶⁾에 끌리지 말라. 이것이 諸佛의 마음 쓰는(用心) 자리이니, 그대들은 부지런히 실행(行)하라⁶⁷⁾고 하였소! 내 이제 물거품(漚)처럼 사라지더라도 슬퍼하지 마시오. ...”⁶⁸⁾라 하였다. 즉, ‘일체법(一切法)의 本性은 空’임을 언제나 알아차리고, 결단코 分別識(第六識)·思量識(第七識: 집착, ego)의 허망한 생각(妄念, 妄想)에 물들지(染着) 않으면, 즉 ‘分別·妄想만 없애기만 하면 곧바로 見性한다’⁶⁹⁾라는 要旨의 말씀이다.

이상과 같은 본 章의 본문과 각주(脚註)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백운은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祖師禪의 실천 要諦(要諦)로 보고, 祖師禪의 전개는 육조혜능(638~713)에서 시작되고 ‘禪의 황금시대’⁷⁰⁾인 마조·백장·황벽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12세기 前期인 원오극근(1063~1135)의 시대까지 조사선이 활발하게 공부·실천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백운이 처음으로 제시한 ‘色·聲·言語’ 방편은 ‘六根의 知覺을 활용’⁷¹⁾하여 祖師禪을 실천한다는 특성을 띠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나면, 우리의 마음은 곧장 온갖 번뇌(煩惱)·망상(妄想)·집착(執着)의 먹구름에 뒤덮이게 되어, 삶 자체가 어둠[無明]에 휩싸이게 된다. ③ 心: 梵語 치타(citta)를 뜻에 따라 번역한 용어이며, ‘第八識, 아뢰야식(阿賴耶識), 제8아뢰야식’ 등으로 지칭된다. 그 뜻은 ‘集起(쌓고 일으킴)’, ‘貯藏’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마음의 본질(體, 性)’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見性하였다’고 말할 때의 ‘見性’은 ‘마음의 본래[根本] 성품(本性)을 깨달았다(見)’라는 의미이다. ‘心意識을 여윈 채’라는 말은 ‘分別(第六識: 分別識)하거나 헤아릴(第七識: 思量識: 妄想; 妄念) 것은 전혀 없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한편, <舊唯識>에서는 第九識으로 ‘阿摩羅識(아마라식: Amala-vijnana)’을 두었는데, 제9식은 완전히 깨끗한 識이므로 ‘白淨識, 無垢識, 眞如識’이라고도 칭한다. 아마라식은 아뢰야식보다 더 깊은 의식으로서, 그 자리가 바로 ‘佛性’이며 부처에게만 갖추어진 識이라 한다. 白雲이 ‘心意識을 여윈 채 부처의 길을 참구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아마라識(佛性)으로 나아감으로써 드디어 冥然地(究竟覺)에 이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64) 無爲: 有爲의 반대 개념, 즉 因緣에 의하여 作爲(造作) 되는 바 없는, 이른바 ‘함(有爲)이 없는 함’을 말한다.
 65) 本來面目: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진실한 모습, 즉 眞如. ‘本地風光’이라고도 한다.
 66) ‘情’: 六根에서 느껴져 일어나는 ‘感情·情念·妄念’ 등을 일컫는다.
 67) 이 말은 ‘馬祖道一의 제자 汾州無業(760~821)이 임종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다(조영미 譯 (2019), 『백운화상 어록』, 332.)’. 백운은 임종 당시에도 ‘마조도일 門中の 祖師禪’을 銘心하고 있었음이 파악된다.
 68) 白雲景閑. 臨終偈. 白雲和尚語錄(下). 韓佛全(6), 668下. “... 古人云, 常了一切空 無一法當情 是諸佛用心處 汝等勤而行之 ...”
 69) 現代에 와서, 법상은 ‘모든 禪의 핵심은 중생의 分別·망상을 없애는 데 있다. 分別·망상만 사라지면 본래 있던 自性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법상 (2020). 선어록과 마음 공부. 서울: 무한, 314.)’라 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70) 한편, 법상은 ‘선의 황금기’란 ‘육조혜능(638~713)에서 시작하여 마조도일(709~788), 백장회해(749~814), 황벽회운(?~850), 임제의현(?~867)/ 청원행사(?~740), 석두회천(700~790), 덕산선감(782~865), 운문문언(864~949), 위산영우(771~853), 양산혜적(803~887), 조주종심(778~867)의 시대이다(법상 (2020), 7-8.)’라 하여, 그 시기를 넓혀서 보기도 한다.
 71) 김태완 (2001), 112.

조사선은 ‘스승(祖師)이 直指人心을 보일 때에는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 순간에 즉각 깨닫는다(見性)’는 것이 중요한 핵심(要諦)임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백운화상은 祖師禪의 실천 방편인 ‘色·聲·言語’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사선을 공부(功夫)하며 회광반조(廻光返照) 함으로써 깨달음(見性)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白雲의 禪思想 특징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祖師禪에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직지」의 편성 내용

본 장에서는 「직지」에 채택·수록된 ‘167個條⁷²⁾의 편성을 그 시작(序頭: <표 1>)과 말미(大團圓: <표 4>)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중간 부분은 「직지」의 편성에서 高峰峻嶺으로 나타나는 ‘六祖慧能·馬祖·百丈·黃蘗(<표 2>)’ 부분을 살펴본 후, 「직지」에 채택된 모든 條項들을 관통하는 백운화상의 編成 思想이 깃들여져 있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표 3>으로 수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백운화상이 「직지」를 편성한 목적 및 의도 등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 전체 흐름을 조망(照望)해 보고자 한다.

(1) 「직지」의 시작 부분인 ‘과거칠불’條의 7개 조항을 <표 1>과 같이 정리하면서 분석한다.

1) 백운은 「傳燈錄」에 典據하여 ① ‘비바시불(毘婆尸佛)’부터 ⑥ ‘가섭불(迦葉佛)’까지 6개 條의 偈頌만을 제시하면서 근본불교의 ‘緣起’와 ‘無我(無自性)’ 및 대승불교의 ‘空思想’과 ‘不二思想’ 등을 나타내는 계송들을 채택함으로써, 禪佛敎의 ‘근본 바탕(本體)’을 전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④ ‘구류손불’條에서는 ‘몸이란 實體가 없는 것이며 마음은 허깨비(幻)와 같아서, 몸도 마음도 그 本性이 空한 것임을 깨달아야(得) 비로소 부처의 경지라는 空思想과 깨달음의 관계를 적시(揭示)하고, 백운은 특히 여기에 ‘身心一如’라는 不二法에 관한 着語를 붙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⑤ ‘구나함모니불’條에서는 ‘佛(부처)이란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사항을 제시하는 계송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과거6불의 각 계송에서는, 불다(Buddha)의 가르침인 ‘緣起, 無自性(無我), 空’이라는 근본불교의 핵심 사상 등과 연관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선불교에서 重視하는 「금강경」의 四句偈, 「반야심경」의 五蘊皆空, 不二思想, 空思想 및 ‘깨달음(見性)’의 문제와 ‘사람이 곧 부처이다’라는 人佛思想들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 이같이 백운은 「직지」 편성의 첫머리(序頭)에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禪佛敎의 핵심 사상들을 기초 돌(礎石)과 같은 징검다리로 깔아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석가모니불’條에서는 「선문염송」의 ① 第3則 ‘見明星悟道’, ② 제5칙 ‘拈花微笑’, ③ 제36칙 ‘摩胸(마흉)’, ④ 제30칙 ‘尼拘(니구울타 나무)’, ⑤ 제52칙 ‘水因’, ⑥ 제19칙 ‘舍歡[放下着]’의 6개 項만을 채택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백운은, 제1항에 ‘見明星悟道’를 발탁함으로써 ‘禪佛敎의 第一義’가 바로 見性임을 揭示하고, 또한 ‘조사선의 실천 방편인 色·聲·言語’를 암시하고 있는 ‘見明星悟

72) 「직지」의 167個條 條別 分類는 ‘무비 (2011), <총 목차>’에 따름.

道’를 채택한 사항은 참으로卓見이다. 제2항에서는 ‘拈花微笑(염화미소) [色·言語]를 채택함으로써 마가가섭에게 以心傳心으로 傳燈하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동시에 ‘正法眼藏(정법의 눈)’과 ‘涅槃妙心(열반의 미묘한 마음)’이 以心傳心의 핵심임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표 1> 「직지」 편성의 序頭: 과거칠불條⁷³⁾

연번	佛祖師	본문의 要旨, 要語	典據, 白雲着語 등	핵심, 사상
1	비바시佛	… 환술로 생긴 사람(幻人)의 心識 ⁷⁴⁾ 은 본래 [實體가] 없으니(無) 罪도 福도 모두 空하여 머무는 바 없네.	典據: 『傳燈錄』 1권(1): 비바시불~가섭불	*緣起, 無我(無自性), 空.
2	시기佛	… 몸이란 물거품(沫) 같고 마음이란 바람(風) 같은 것, 幻[術]에서 나온 것은 根[本]도 없고 實相도 없다.	*白雲 着語: 幻相으로 생긴 것은 근본이 없으니 그것이 곧 實相이며, 虛妄을 알면 곧 眞實이다.	*五蘊皆空. *『金剛經』 四句偈: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 *空思想.
3	비사부佛	… 마음은 본래 생멸이 없으나(無生[滅]) 경계(境: 對象)에 원인하여 존재하다가, 대상이 없어지면 마음 또한 없어진다.	*백운 착어: 마음은 본래 形相이 없고 경계에 의탁하여 생긴다. 경계의 본성 또한 空이니, 마음과 대상은 하나이다.	*緣起, 三法印(諸行無常, 諸法無我, 一切皆苦), 空. *마음의 正體: 마음의 모양
4	구류손佛	… 몸과 마음의 本性이 空(實體가 없음)한 것을 깨닫기만 하면, 곧 부처이다.	*백운 착어: 몸과 마음은 같은 것이며(身心不二), 몸밖에 다른 것은 없으니, 山河大地가 어디에 있겠는가.	*空思想 *不二思想
5	구나함모니佛	… 부처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것이다. …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性品이 空함을 알기에, 生死를 두려워하지 않네.	*부처란 어떤 존재인가?	*性品の 空함 *人佛思想(사람이 곧 부처)
6	가섭佛	… 일체 중생은 그 本性이 空이라, 본래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無生無滅). 이 몸과 마음은 幻[影]으로 생긴 것이라, 환영에는 罪도 없고 福도 없다.	*일체중생의 ‘心·身, 生·死, 罪·福’ 등은 幻影이며, 不生不滅이고 空이다.	*緣起法, *空思想
7	석가모니佛	1項: 見明星悟道: 偈頌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라네, 사물을 쫓아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無情物도 아니라네> ⁷⁵⁾	전거: 『禪門拈頌』 1권(제3칙)	*석가모니의 깨달음 순간 *色·聲·言語의 ‘色’(색별: 형상)
		2項: 拈花示衆: … 세존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자, 가섭이 미소하였다. 『正法眼藏 涅槃妙心』을 가섭에게 부촉(付囑: 傳燈)하노라.’		*佛陀 → 가섭 傳燈(教外別傳, 不立文字) *色聲言語의 ‘色(꽃)·言語(말씀)’
		3項: 부처, 涅槃會上에서 열반에 대해서 說하다	*백운 착어: ‘如來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또한 열반에 들지도 않았다’는 말과 같다.	*『열반경』 佛性思想. *空思想 *存在의 實相(不生不滅) *色·聲·言語의 ‘言語(말씀)’
		4項: … 깨어 있는 가운데, 보아도(見) 봄이 없고(不見), 들어도(聞) 들음이 없다(不聞).	*백운 착어: ‘몸과 마음은 土木과 같고, 보고 듣는 것은 눈멀고 귀먹은 이(盲聾)와 같다.	*對境無心 ⁷⁶⁾
		5項: 물의 원인(水因)을 깨닫다: 觸塵圓通.		*『楞嚴經』 觸塵圓通. *色·聲·言語의 ‘色(촉감)’
		6項: 흑씨범지에게 “... 내려놓아라(放下着) ... 내려놓아라. ... 지금 마땅히 밖으로는 六塵과 안으로는 六根과 그 중간으로는 六識을 一時에 다 내려놓고, 더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대가 生死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범지는 이 말씀 끝에 즉시 깨달았다(梵志 於言下悟去[言下大悟]).	典據: 『선문염송』 1권(19칙)(合歡[放下着]).	*放下着: 『직지』 ① 석가모니불條, ② 백장회해條(2項), ③ 조주종심條(4項). *言下大悟(祖師禪)

73) 紙面의 확보를 위하여, 각 條의 본문 및 인용 원문 등은 생략함. 이하 모든 表 또한 이에 준함.

제6항(‘放下着’)에서는, 주관(六根)과 객관(六塵) 및 認識(六識) 작용을 한꺼번에 모두 내려놓을 때(‘放下着’), 恧연 無心이 되어 解脫知見인 般若智慧로 廻光返照하여 空을 체득함으로써 비로소 解脫(見性)함을 응변하고 있다. 특히 ‘放下着’은 祖師禪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데, 白雲은 이 사항을 ‘석가모니불’條에 채택하여 「직지」를 편성한 것은 또한 탁견(卓見)이다. 그밖에 ‘석가모니불’條의 6個項 전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항에서 祖師禪의 실천 방안인 ‘色·聲·言語’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고, 특히 제6項은 ‘放下着’⁷⁷⁾과 ‘言下大悟’ 관련 項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白雲이 「직지」를 편성한 배경에는 ‘어쩌면 조사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직지」를 편성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개연성(蓋然性)이 농후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직지」에는, <표 1> 이후에 제시되는, ‘西天祖師 28條’에서 ‘東土祖師의 6條(五祖弘忍)’까지에 주목되는 條들이 있다. 이를 분석하면, 첫째 ‘西天2, 아난존자條’에서는 ‘마하가섭이 아난존자에게 法을 傳燈하는 장면 및 대화 부분’이 제시된다. 白雲은 이 條의 끝에, “... 부르는 자리가 분명하고, 대답하는 자리가 진실하다. 그 가운데에 ‘色·聲·言語’를 갖추었으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禪이다”⁷⁸⁾라는 着語를 손수 붙임으로써, ‘불다(Buddha)로부터 가섭에게 以心傳心으로 傳燈된 깨달음을, 가섭이 아난존자에게 전해줄 때, ‘色·聲·言語’를 통하여 傳燈하고 있음’을 摘示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운은 「백운어록」 <祖師禪>에서 “조사선은 色·聲·言語를 떠나지 않는 것이요. ... 本分宗師의 本分答話는 모두 色·聲·言語를 갖추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祖師禪 이다”라고 하는 등 ‘色·聲·言語’ 방편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⁷⁹⁾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 백운의 위 着語에서 “... ‘色·聲·言語’를 갖추었으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禪이다”라고 함으로써 조사선의 悠久한 전통과 嫡統性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西天祖師의 ‘제17, 승가난제’條에서는 ‘방울이 바람이 흔들려 나는 소리(聲)와 마음’의 문제를 채택하여 ‘祖師禪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通)하여 깨닫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4) 그밖에 ‘西天祖師 28條’ 및 ‘東土祖師의 6條까지’에는, <표 2>에 제시되는 ‘慧能과 마조·백장·황벽 3代의 祖師禪’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대승불교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佛性, 깨달음(道), 佛性과 見性, 中道, 分別·妄想識, 佛性과 空’ 등등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지」에 채택·제시된 모든 條項들은 각각 祖師禪 傳燈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74) 心識: ‘心·意·識’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心’은 唯識說의 第8識(阿賴耶識)을 말하고, ‘意’는 第7識(末羅識: 삼재의식; ego)이며, ‘識’은 第6識(認識: 사물 등을 分別하고 판단해서 아는 일)을 가리킨다.

75)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룰 때], 셋별(明星)을 본 것이 하나의 계기는 되었지만,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그 별은 이미 별이 아니다. 자신이요, 우주이다. 진리 자체다. 별을 쫓아갈 일이 없다. 그렇다고 木石과 같은 무정물이어서 그러리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무비 (2011). 직지 강설(上), 45.).

76) 외부의 경계에 부딪혀도 無心함.

77) 석가모니가 見性하기 以前의 ‘6년 고행’과 ‘견성의 과정’을 거칠게나마 살펴보면, 석가는 外道の 修行法인 ‘선정’과 ‘육체적 고행’을 포기하고, 수자타가 공양한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면서, 기존의 修行法들을 모두 내려놓고(放下着), 無心·無爲로 명상에 들었을 때 비로소 見性할 수 있었음을 想起해 볼 필요가 있다.

78) “私曰, 二尊 不并化. 喚處分明 應處眞 个中 具色聲言語也 最初禪也”

79) 白雲景閑. 祖師禪. 白雲和尚語錄(上). 韓佛全 第6冊, 653下-654中. 참조 要.

(2) <표 2>에서는, 「직지」의 편성에서 高峰峻嶺으로 나타나는 ‘六祖慧能’과 ‘마조·백장·황벽’條들을 주목하고 이들 조항과 ‘祖師禪의 전개 및 완성’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 「직지」 ‘육조혜능, 마조·백장·황벽’條

연번	區分 ⁸⁰⁾	祖師	主題, 要語	핵심 사상
1	東土7	六祖慧能 (638~713)	1項: … 「금강경」應無所住 而生其心’을 듣고 黃梅山 五祖弘忍을 뵈다./ 3項: 道라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에 緣由(道由心悟)한다. 어찌 坐禪에 있겠는가?/ 6項: ‘一物 = 一心(한마음)’./ 7項: 本來無一物/ 8項: 心無着(마음에 집착이 없음)/ 10項: 無念이면 그 생각이 바르게 된다.	*無念: 慧能의 專賣特許 *『金剛經』應無所住 而生其心 *空思想 *無念(眞宗) *南宗의 頓悟思想: 祖師禪의 出發. *心無着: 집착하지 말라
3	東土14	馬祖道一 (709~788)	*1項: 卽心是佛(마음이 부처이다), 無心是道(無심이 道이다). *2項: 道는 닦는데 있지 않다(道不屬修). 닦아서 이루는 것이라면 닦아 이룬 뒤에는 다시 과되되 마련이다. … 道를 通達하는 견해는, 自性[佛性]은 본래 具足되어 있으니, 善·惡에 막히지만 染오면 그만이다. *3項: 善을 취하고 惡을 버리며, 空을 觀하고 禪定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造作[有爲]에 속한다. … 一念의 妄想은 곧 三界生死의 근본이니, 다만 一念妄想만 없으면[無心: 無爲] 곧 生死의 근본이 없다. *4項: 平常心是道: 道는 닦는(修行) 것이 아니니, 다만 더러움에 물들지(汚染) 않게 하라. … 만약 곧바로 道를 알고자 한다면, 平常心이 道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造作이 없고, 是非가 없고, 取捨가 없고, 斷常도 없고, 凡聖이 없는 것이 平常心이다. … *5項: 有爲에도 無爲에도 머물지 말라. … 心眞如[佛性]란 마치 밝은 거울(마음)이 形像(境界: 法)을 비추는 것과 같다.	*無心[妄想없는 마음]: 馬祖가 禪旨를 나타내는 용어로 즐겨 사용되었음. *色·聲·言語의 ‘言語’: 祖師禪의 禪旨(마조의 ‘言語’, 즉 上堂說法(示衆)과 ‘禪問答’ 등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임. *馬祖: 祖師禪의 완성자 *無心 = 眞如心
3	東土15	百丈懷海 (720~814)	*1項: … 마음의 성품(心性)은 물들[오염]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圓成), 다만 허망한 인연만 떠나면 곧 如如한 부처라네. *2項: 大乘入道頓悟法要: “그대는 먼저 모든 인연과 萬事를 다 쉬어라. 善·惡 및 世間·出世間과 일체의 法을 모두 버리고(放却) 기억하지도 말고 얽매이거나 생각하지도 말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서 온전히 自在하게 하면, 마음은 木石과 같고 입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서, 마음이 수행할 것도 없게 되리라. 마음의 바탕(心地)이 현공(空)과 같아지면 지혜의 태양(日)은 저절로 나타나리니,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日)가 드러나는 것과 같으리라.” *3項: 백장선사가 대중에게 보이기를(示衆): [祖師禪의] 배움(學)이란 마치 때가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 옷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때(垢)는 밖에서 온 것이다. 보고 들은 일체의 有無와 ‘聲(소리)’나 ‘色(형상, 행위)’에 관한 말씀[言語]은 마치 기름때(垢膩)와도 같은 것이니,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로 마음이 머물게(溼泊: 집착) 하지 말라. *4項: 差別智와 無差別智. *5項: 세 가지 나쁜 욕망	*放下着(내려놓아라): 모든 分別하고 執着하는 마음만 한꺼번에 내려놓으면 곧바로 見性한다. 석가모니의 放下着. *色·聲·言語의 ‘言語’ 방편 공부의 背景 *4項: 差別智와 無差別智
4	東土16	黃蘗希運 (?~850)	*1項: … 裴休가 “형상[肖像]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 갔습니까?” 황벽이 “相公!”하고 부르니, 배 상공이 ‘예’ 답하였다. 황벽이 “고승이 어디 있네”. 배 상공은 그 말끝에 크게 깨달았다(言下頓悟: 言下大悟). ⁸¹⁾ *2項: 이 本源이며 淸淨한 마음 바탕(心體)은 항상 스스로 원만하고 밝게 두루 비추건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다만 見聞覺知(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기)만을 자기 마음으로 誤認하여, [마음 바탕은] 見聞覺知에 덮힌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精明한 마음의 본래 바탕(本體)을 볼 수 없다. 다만 當장에 無心하면(直下無心) 마음의 본바탕(本體)은 저절로 나타나면서 큰 태양과 같이 허공에 떠올라十方(十方)에 두루 비추어서 다시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5項: 道를 배우는 사람이 成佛하고자 하면, 일체 佛法을 모두 배우려 하지 말고, 오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면 된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소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不生不滅) 곧 부처이니라. 道를 배우는 사람은 그저 一念(한 생각)만 있어도 두려워해야 하니, 한 생각만 있어도 道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念念) 相이 없고, 생각마다 합이 없으면(無爲), 이것이 곧 부처이다. *6項: 無心이 道를 행하는 것이니, …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경계에 빠지는 것이오 … 망령된 마음(安心)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15項: 道를 배우는 사람이 當장에 무심하지 못하면 무한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성스런 道를 이룰 수 없다. 만약 當장에 무심하면 곧 그것이 究竟의 경지[究竟覺]이다(若能直下無心 便是究竟). ◎『傳心法要(15)』에서 裴休가 ‘세간의 이치(世諦)’를 묻는 대목에서 황벽 말하기를, “誌公(418~514)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文字로 구하려하는가? … 一切時(하루 24시간) 중 行住坐臥에 다만 無心을 배워 오래되면(久久) 반드시 얻을 것[見性]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역량이 부족하니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한다. 다만 3년이나 5년 후 10년만 功夫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入頭處)을 얻어 자연히 깨닫게 될 것이다(自然會去)”	*言下大悟. *色·聲·言語의 ‘言語’: 示衆 및 禪問答 등 *直下無心(當장에 無心하라) = 究竟覺 *마음: 心體(마음의 본바탕) *直下無心の 공부 期限: 「직지」의 편성에서 이 부분은 「직지」(下)의 마지막 條: ‘東土133, 친복승고條로 代置됨.

1) <표 2>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스승(祖師)은 色·聲·言語를 활용하여 ‘直指人心’을 보여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의 그 가르침 순간에 즉각 깨닫는다(‘見性成佛’)라는 祖師禪의 특징이 이들 조항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즉, 마조도일(709~788) 시대부터 ‘祖師(스승)가 마음(一心: 佛性)을 직접 가리켜 보일(直指人心) 때에는 禪問答뿐만 아니라 ‘示衆(上堂說法)’ 및 ‘色·聲·言語 방편’을 활용하여 조사선의 가르침을 완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을 파악할 수 있다.⁸²⁾

2) <표 2>에 제시되는 祖師禪의 두 번째 특징은, 조사선에서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하는 방법은 「직지」 ‘東土15,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條에서도 나타난다. 즉 이 條의 제3항에,

백장선사가 대중에게 보이기를(示衆), “[祖師禪의] 배움(學)이란 마치 때가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 옷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때(垢)는 밖에서 온 것이다. 일체의 有無와 ‘聲’(소리)이나 ‘色’(형상, 행위)에 관한 말씀[言語]은 마치 기름때(垢膩)와도 같은 것이니, 모든 것에 절대로 마음이 머물게[집착] 하지 말라.”⁸³⁾

라 하였다. 여기에서 백운은 ‘조사선을 배우는 것은 마치 때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바깥 경계인 ‘色·聲·言語는 옷에 묻은 기름때와 같은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色·聲·言語)을 통하여 마음의 바탕(體)을 깨닫고자 할 때 마음에서 집착(執着: 分別·妄想)하지만 않으면 곧바로 깨달음(見性)을 이룰 수 있으므로, ‘色[형상·행위]·聲[소리]·言語[말씀·文句]’를 조사선 공부의 실천 방편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境界를 대할 때, 집착하는 마음 없이(放下着), 있는 그대로를 보라’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見性)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3) <표 2>에 제시되는 祖師禪의 세 번째 특징은, 육조혜능은 ‘無念’을 그 중요 콘텐츠로 指摘하고, 마조는 ‘無心·平常心’을, 백장은 ‘放下着’을, 황벽은 ‘直下無心’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세대가 지나면서 제자들을 지도할 때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을 각각 달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⁴⁾ 이러한 ‘無心’ 등 위 4개 용어의 핵심은 하나같이 마음에서 ‘分別·妄想’

80) <표 2>의 ‘區分’에서는, <무비 (2011), 총목차>에 제시된 ‘中國禪師’條에 제시된 祖師들의 일련번호에 대한 편리한 식별을 위하여, ‘中國禪師의 일련번호’는 그대로 借用하면서 ‘中國禪師’를 ‘東土禪師’로 수정하여 표기하였음. 「직지」에는 중국 선사뿐 아니라 한국(新羅大嶺) 선사도 있기(第91條) 때문이다. 또한 ‘東土’는 그 앞의 ‘西天’과 대칭(對稱)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81) 「相公!」하고 부르는 자리가 분명하고, ‘예’하며 대답하는 자리가 진실하다] 여기에는 어떤 思量·分別도 끼어들지 못한다(심성일 (2022). 이것이 禪이다. 고양: 침묵의 향기, 14.). 그 순간 황벽의 번개 같은 直指人心(“高僧이 여기 있네”)의 가르침에, 배 상공이 즉각 言下大悟한 것이다.

82) 그밖에 「馬祖語錄」에 의하면, [馬祖는] 흐르는 물을 가리킨다든지, 뒤에서 갑자기 이름을 불러 돌아보게 한다든지, 걸어찬다든지, 후려친다든지, 눈썹을 찡그린다든지, [할(喝)을 하는] 등의 동작(행위)을 통하여 佛性의 움직임(直指)이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태완 (2001), 99.). 이 모든 ‘행위’들은 色·聲·言語의 ‘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83) “百丈示衆云, 學似浣垢衣. 衣是本有 垢是外來. 聞說[言語]一切有無色·聲 如似垢膩 都莫將心湊泊(무비 (2011). 직지 강설(상), 300.)”

84) 예컨대, 黃蘗希運이 재가불자인 배휴(裴休) 相公을 지도할 때에는 ‘言語’로써 조곤조곤 祖師禪을 설명하여, 결과적으로 「傳心法要」라는 語錄을 남겼다. 그러나 출가 제자인 臨濟를 지도할 때에는 황벽은 20방(榜)씩 세 차례 도합 60방의 몽둥이질을 함으로써, 제자를 일깨우는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色’: 행위)을 택하였다. 이처럼 祖師와 제자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지도의 방법을 적절하게 달리 선택하는 것이 祖師禪의 특징이다.

을 없애는 데 있다.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그리하여 마조·백장·황벽 3대에 걸친 조사선의 완성은 ‘禪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 영향력은 현대에 와서 다시 막강하게 再現되고 있다.⁸⁵⁾

4) <표 2>에 나타나는 祖師禪의 네 번째 특징은, 마조·백장·황벽 3代 중, 황벽은 『傳心法要』에서 “[梁] 誌公(418~514)和尚]께서 말씀하시기를, ‘… 그대는 하루하루 지내면서 다만 無心을 배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깨달음[見性]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니 단번에 [깨달음으로]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3년이나 5년 혹은 10년만 공부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서(須得箇入頭處) 자연스레 깨닫게 될 것이다(自然會去)’⁸⁶⁾라고 하여, 이른바 황벽이 제시하는 ‘祖師禪 깨달음의 공부 期限’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學人들로 하여금 見性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백운은 『직지』의 편성에서 위 ‘황벽의 깨달음 공부 기한’에 관한 條項 채택을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크게 주목된다. 그 대신 백운은, 『직지』 대단원의 마지막 條인 ‘東土133, 薦福承古(?~1045)’條를 按配함으로써 『직지』의 편성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finale) 특징을 보인다.卓見이다. 그리하여 황벽회운·천복승고는 ‘祖師禪을 실천·공부하면 3년 혹은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이면 반드시 깨닫다’라는 確信을 부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백운 또한 이 부분을 看過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⁸⁷⁾

5) 무엇보다, <표 2>에서 白雲이 채택한 ‘마조·백장·황벽’條의 내용들은, 그 典據가 되는 ‘馬祖語錄’·‘百丈錄’·‘傳心法要’·‘宛陵錄’의 原典 중에서 그 핵심들을 각각 揀하여 채택함으로써, 굳이 이러한 原典을 모두 공부하지 않고, 다만 『직지』에 채택된 부분만 공부하더라도 마조·백장·황벽의 祖師禪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直指人心’하는 바를 당시의 학인들과 後代의 讀者들이 곧바로 알아차리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표 3>에서는, 마조·백장·황벽의 禪의 황금시대를 前後하여, 『직지』 편성의 서두인 ‘석가모니’條부터 祖師禪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14세기 초기까지 전개되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직지』의 편성 총 ‘167個條’ 중에서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직지』 ‘東土18, 반산보적’條부터 ‘東土115, 원오극근’條 및 ‘東土121, 몽산덕이’條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여 개 이상의 條에서는, 六祖慧能 이후 禪宗의 거의 모든 禪師들이 ‘祖師(스승)는 色·聲·言語 방편을 활용하여 法(直指人心)을 보여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法門·禪問答 등)에 즉각 見性하는 사례들’이 無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지』의 각 條 原文에 “言下大悟([祖師의] 말끝에 크게 깨달았다), 豁然大悟(깨끗듯 크게 깨달았다), 省悟(분명히 깨달았다), 從此得入(이 말에서 깨달아 들어갔다), 忽開悟(홀연히 깨달았다), 自識本心(스스로 本心을 깨달았다),

85) 현대에 와서, 祖師禪을 공부하는 출가자와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見性하는 이들이 우후죽순같이 등장하고 있음도 특히 주목해 볼 일이다.

86) 黃蘗希運. 傳心法要. 김태완 역주 (2020). 황벽어록. 고양: 침묵의 향기, 91-94. “誌公云 佛本是自心作 那得向文字中求. … 你如今一切時中行住坐臥 但學無心 久久 修實得. 爲你力量小 不能頓超 但得三年 五年 或十年 須得箇入頭處 自然會去.”

87) 만약 백운이 『직지』의 大尾를 장식할 ‘東土133, 薦福承古(?~1045)’條를 찾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위 ‘傳心法要’ 15項’을 『직지』의 마지막 條로 채택하였을 것이다.

<표 3> 「직지」의 편성 167個條 중 ‘祖師禪의 色·聲·言語 方便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條

연번	區分	각條, 祖師: 내용(방편)	色聲言語·垂語 등 細區分
1	過去七佛	*過去七佛, 석가모니불條: ① 見明星悟道(色·聲), ② 拈花微笑(色·言語) 傳燈, ③ 발다라파라살項: 觸塵通(色·言語), ④ 흑씨법지項: 放下着(色·言語).	*色: 1 *色·言語: 3
2	西天祖師 ~ 三祖僧璨	1) 西天2. 아난존자條: 창간을 넘어뜨려라(色聲言語[백운 착어]), 2) 西天17. 승가난제條: 방울소리(聲·言語), 3) 西天19. 구마라다條: 사야아의 言下大悟(言語), 4) 東土2. 혜가대사條: 마음을 가져 오너라(言語), 5) 東土3. 바라제존자條: 바라제와 이견왕의 문답 끝에 이견왕의 깨달음(言語), 6) 東土5. 삼조승찬條: 혜가와 승찬과의 문답, 印可(言語)	*聲·言語: 1 *言語: 4 *色聲言語(중합): 1
3	六祖慧能 ~ 大願寶通	* 上卷: 1) 東土7. 육조혜능條: ‘應無所住而生其心’文句(聲言語), 2) 東土8. 청원행사條: 청원과 육조의 문답에서 印可(言語), 3) 10. 영가현자: 영가와 육조의 문답, 印可(言語), 4) 11. 남양혜충: ① 侍子를 세 번 부르다(色聲言語), ② 물병을 가져오너라(言語), 5) 12. 하택신회: 신회와 광보의 문답, 광보 종지를 알(領旨: 言語), 6) 16. 황벽회운: 황벽과 배후의 문답, 배후 言下大悟(言語), 7) 18. 반산보적: ① 고기간에서의 깨달음(有省: 色聲), ② 葬送歌 노래, 哭소리, 馬祖의 印可(可: 色聲言語), 8) 19. 귀중지상: 솔뚜껑을 세 번 두드리다(聲): 무엇이 소리를 듣는가?를 觀照하는 방법, 9) 20. 대매법상: 날다람쥐 소리(聲·言語), 10) 21. 대주해해: 마조와 대주의 선문답에 自識本心(言語), 11) 23. 귀중지상: 귀중과 승려의 문답에 言下大悟(言語), 12) 24. 서산亮座主: 馬祖와 양 좌주의 문답에서, 좌주가 웃을 휘날리며 나갈 때, 마조가 좌주를 부르니, 순간 좌주가 大悟(色聲言語), 13) 25. 오설영목: 석두와 영목과의 문답에서, 영목이 웃기 휘날리며 나갈 때, 석두가 부르고 문자, 영목이 言下大悟(色聲言語), 14) 26. 석공혜정: 석공과 마조의 선문답, 석공이 깨닫고(頓息) 출가(言語), 15) 27. 약산유언: 약산과 석두의 문답, 약산을 印可(言語), 16) 28. 위산영우: ① 위산이 淨瓶을 차버리다(色聲言語), ② 위산과 양산의 문답(言下頓悟: 言語), 17) 29. 조주종심: ① 남전과 조주의 문답(言下大悟: 言語), ② ‘庭前柏樹子’(垂語), ③ ‘발우나 셋어라’(大悟: 言語), ④ ‘放下着’(엄양 大悟: 言語), 18) 31. 풍산도명: 도명(혜명)과 육조, 大隈嶺 문답(言下大悟: 言語), 19) 34. 형약혜사: 病的 통증으로 一念明達(色), 20) 35. 조과도림: 조과와 侍子 회동, 무엇이 불법인가?의 질문에 누더기옷의 실오라기 뜯어 입으로 붙자, 시자 大悟(色聲言語), 21) 38. 양산연관: 양산과 대양연 문답, 대양연 印可(色聲言語), 22) 40. 태원부 좌주: 태원부 상좌와 선가의 문답 후, 좌주가 밤에 부치는 소리를 듣고 大悟(聲), 23) 41. 설원귀성: ① 죽비에 관한 문답 후, 귀성이 大悟하고, 죽비를 꺼어서 던지다(色聲言語), ② 차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는가? 이 말에 승려가 豁然大悟(色聲言語), 24) 42. 양수 좌주: 양수가 마곡선사의 방 문을 두드리다, ‘누구나?’ 물음에 대답하다가 忽然大悟(色聲言語), 25) 43. 자명초원: 자명화상과 전대도와 의 문답, 전대도가 호랑이 소리를 지르자, 자명이 印可하다(色聲言語), 26) 45. 무주화상: 무주와 두상공의 문답, 두상공 言下大悟(言語), 27) 46. 월산화상: 햇빛을 보고 豁然大悟(色), ** 下卷: 28) 東土51. 불감해근條: ...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승려 깨달음(有省: 言語), 29) 52. 나산도환: 나산이 암두에게 물었다. 암두의 ‘할(喝)’과 질문에 나산 言下大悟(色聲言語), 30) 東土53. 보은현칙條: 法眼‘병정 등자(火)가 불(火)을 구하는구나’ 현칙은 그 말 듣고 豁然大悟(言語), 31) 54. 양기방화: 양기가 자명이 자명을 친견, 번번이 질문하고 벽살을 잡자, 자명은 ‘그대는 스스로 알아라, 나는 그대보다 못하다’ 양기 言下大悟(色聲言語), 32) 55. 용담승신: 용담이 승신에게 물었다. ... ‘보려면 당장에 보아야 한다. 생각을 머뭇거리면 곧 어긋난다’ 용담이 當下大悟(言語), 33) 57. 위산영우: 위산이 백장에게 물었다. ... ‘이것은 불 아닌가?’ 위산 大悟(色聲言語), 34) 59. 현사사비: 현사에게 경정이 여쭙기를, ... ‘그대는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가?’ ... 경정이 言下에 들어가는 곳을 얻었다(聲·言語), 35) 60. 법안문의: ① 지장이 법안에게 물었다. ... ‘모르는 것이 가장 친절(가까움)한 것이냐’ 법안 豁然大悟(言語), ② ‘부젓가락’ 건: 오공이 깨달음(言語), ③ 계침이 ‘마음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 법안 大悟(言語), ④ 법안의 법사에서, 승륙 言下大悟(言語), ⑤ ‘조계의 한 방울 물’ 대답에 천태덕소 豁然大悟(言語), 36) 東土61. 용계소수條: ① 소수가 지장에게 질문, 지장이 주장자 세우며 대답, 소수 省悟(色·言語), ② 소수에게 승려 질문, 소수의 대답에 승려 깨달음(有省: 言語), 37) 62. 僧子方: 자방이 법안에게 물었다. ... 법안이 ‘萬相의 안이다~이(噢)! 하니 자방이 깨달았다(悟得: 言語), 38) 63. 소수산주: 소수가 법안에게 묻는 중, 지장이 참여하여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萬相이라 하는가?’ 소수가 大悟(言語), 39) 64. 용아거둔: 거둔이 암두에게 여쭙는데, 암두가 말 한쪽을 드러우니, 거둔이 예배(깨달음의 징표)하고 계승(色·言語), 40) 68. 천태덕소: 어떤 승려가 법안에 ‘조계의 한 방울 물’을 질문하자, 옆에 있던 천태덕소가 豁然大悟(言語), 41) 69. 설봉의존: 설봉과 암두의 대화에서 설봉의 言下大悟(言語), 42) 73. 현정禪師: 현정과 화엄경 공부 학인과의 문답에서 학인이 言下大悟(言語), 43) 74. 寶壽화상: 보수가 시중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보았다. 한 사람이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기니, 맞은 사람이 ‘이렇게 되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보수가 이 말에 大悟(色·言語), 44) 75. 신안홍성: 신안이 설봉에게 물어 문답: 설봉이 신안의 벽살을 잡고 다그치자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자 설봉이 印可하다(色·言語), 45) 76. 영운지근: 영운이 위산 회하에 있다가, 복사꽃을 보고 悟道(色), 46) 78. 경조미호: 경조와 왕상시의 법거랑에서, 왕상시가 붓을 들어보이고 ... 경조의 깨달음을 인정(者漢徹也: 色言語), 47) 80. 덕산선간: ... 용담이 촛불을 붙여 끄자, 덕산이 깨닫다(色聲言語), 48) 81. 동산양개: 동산이 운암에게 질문, ... 뒷날 물을 건너다가 물그림자를 보고 大悟(色·言語), 49) 82. 창평영준: 영준이 취미와 문답, 취미가 대나무를 가르키며 ‘이 한 줄기는 이렇게 길고, 저 한 줄기는 저렇게 짧다’ 영준이 言下大悟(色·言語), 50) 83. 고정간禪師: 고정간선사가 조면에 강을 사이에 두고 덕산을 보고 멀리서 합장하며 인사말을 하자, 덕산이 손에 든 부채로 부르는데, 고정간이 홀연 開悟(色·言語), 51) 84. 운암당설: 운암이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그대가 외우는 것은 무슨 경전인가?’ ‘유마경입니다’ 운암이 ‘유마경 문지 않았다. 외우는 것은 무슨 경전인가?’ 그 승려는 이 말에서 깨달아 들어갔다(言語), 52) 92. 지장계침: ① 지장이 수산주에게 물었다. ... ‘무엇을 버려서 三界라고 하는가?’ 수산주가 그 말에 깨달음(言下有省: 言語), ② 지장이 보복사 사찰의 승려에게 물었다. ... ‘그대의 뜻을 막지 않음이니,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승려가 이 말에 言下大悟(言語), 53) 95. 동산수조: 수조에게 운문이 물었다 ... ‘이 밥자루야, 강서와 호남에도 그렇게 갔었구나’ 수조가 이 말에 言下大悟(言語), 54) 97. 청환선사: 청환이 수룡도부 친견하자, 문답 후 청환을 허락(깨달음 인정: 言語), 55) 102. 우적상공: 우적이 약산에게 질문,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상공이 그 말에 言下悟去(言語), 56) 106. 광효안: 광효선사가 덕소국사에게 물었다. ... ‘무엇이냐?’ 광효가 향로를 넘어뜨리고 나가자, 덕소가 그를 인정했다(色聲言語), 57) 107. 화엄온광: 온광이 禪師와 문답하다, 온광이 그 뜻을 깨달았다(言語), 58) 108. 덕산연멸: 덕산 휘하의 禪師(應尼)가 無字 회두를 듣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덕산이 대처법을 알려주자 ... 응진이 廓然徹悟(色聲言語), 59) 110. 張拙相公: 장졸이 석상에게 참배하고 물었다. ... ‘교묘함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서투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장졸이 言下有省(言語), 60) 112. 향엄지한: 향엄과 양산의 법거랑: ... ‘師兄이 祖師禪을 안 것을 기뻐하노라’(色聲言語), 61) 113. 도오선사: 色聲言語의 갖추(色聲言語), 62) 東土115. 원오극근條: 小炎詩, 庭前柏樹子: ‘나의 侍子(극근)가 祖師禪을 참구하여 얻었소’(垂語, 色聲言語), 63) 東土117. 고령신찬條: 신찬이 백장을 만나 깨닫고, 대중사 은사에게 色聲言語를 보임(色聲言語), 64) 東土119. 대전보통條: 석두와의 문답에서 言下大悟(言語).	*色: 3 *色·聲: 1 *色·言語: 9 *聲: 2 *聲·言語: 3 *言語: 37 *色·聲·言語: 19 *垂語: 2

豁然有省(깨닿듯 깨달았다), 言下領旨(말끝에 크게 깨닫다)” 등등 이른바 「조사선 방편으로」 見性하였음을 표시하는 조항들만 導出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사선의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견성한 사례」條는 무려 ‘71個」條에 ‘86回」나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직지」는, 스승이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가리켜 보이고 제자는 즉각 견성한 사례들을 모두 간추려 모아 편성함으로써, 「직지」는 조사선 色·聲·言語 방편을 통(通)하여 견성한 사례들을 集大成한 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⁸⁸⁾ 그렇다면 ‘白雲이 「직지」를 편성한 배경 및 목적은 바로 祖師禪을 선양(宣揚)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다.

2) <표 3>에 제시된 「직지」의 모든 條項들을, 지면 관계상, 일일이 모두 분석하지 못함은 실로 유감이다. 이 모든 조항은 하나 같이 조사선의 正體를 제시하고 있는 金科玉條이기 때문이다. 다만 백운이 「직지」를 편성하면서 下卷의 후반부에서도 祖師禪의 실천 방편인 ‘色·聲·言語’ 용어를 손수 記入하면서 着語를 붙인 사례 하나만 살펴보면, 「직지」 ‘東土113, 도오원지⁸⁹⁾條에, “도오선사께 어떤 승려가 ‘무엇이 祖師禪입니까?’라고 여쭙었다. 이에 도오가 말하기를, ‘강남 땅 이·삼월의 풍경을 떠올려 보자니, 자고새가 우는 곳에, 白花의 향기가 그윽하구나”라는 文句를 채택하고 있다. 白雲은 이 문구에 着語를 붙이기를 “이 一句는 色·聲·言語를 갖추었으니, 이것은 ‘무릇 한 마디(一句: 깨달음) 말을 하고 싶다면 세 마디(三句)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뜰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와 같은 本分答話이다”라고 하여, 白雲은 ‘조사선 色·聲·言語 방편을 활용하는 原理’를 想起시키고, ‘이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오로지 祖師禪의 色·聲·言語 방편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백운은, 「직지」의 편성에서 위와 같은 ‘東土113, 도오원지’條 다음에 ‘東土115, 원오극근’條를 채택하고 있다. 즉 ‘色·聲·言語’(小炎詩) 방편에 ‘庭前柏樹子(뜰앞의 잣나무)’라는 垂語를 첨가하여 法을 보여서 가르치는 응용사례를 덧붙여 채택함으로써 ‘祖師禪을 공부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깨닫는 비결(秘訣)’도 예시하는 치밀함도 보인다.

(4) <표 4>는 「직지」 편성의 大團圓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백운은 ‘東土122~133條’까지의 12個條로 마무리함으로써 「직지」의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먼저 ‘東土122, 낙보원안’條의 <浮漚歌>와 ‘東土123, 등등화상’條의 <了元歌>를 채택하여, 대승 불교의 ‘空思想’과 ‘五蘊皆空’ 및 ‘不二思想’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禪佛敎 見性的 근본 바탕(體)을 먼저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東土124, 誌公和尚’條에서는 <大乘讚頌 十首>와 <十四科頌> 전부를 채택하여, ‘色·聲·言語를 통한 조사선의 실천 방편을 제시함으로써 깨달음(見性)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道)을 열어 보이고 있음’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십사과송>에서는 ‘보리(菩提)와 번뇌는 둘이 아님(菩提煩惱不二)’ 등의 ‘14개 사항의 不二法’을 모두 채택함으로써, 조사선의 궁극 목적인 깨달음(見性)이야말로 ‘生死가 그대로 열반(涅槃): 生死不二’임을 저절로 터득하게 하여주고 있다.

88) 「직지」에 편성된 條項 중, ‘大悟’라는 말이 없는 條項들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거의 모든 조항들은 祖師禪의 妙理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조사선의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89) 道吾圓智(769~835): ‘馬祖道一 → 石頭希遷 → 藥山惟儼 → 道吾圓智’의 法脈.

<표 4> 「직지」 편성의 大團圓

연번	區分	祖師	主題, 要語	핵심 사상
1	東土122	樂普元安 (834~898)	*〈浮漚歌〉: 물과 물거품의 관계를 살피어 인생의 實相을 간파함. ... 五蘊이 헛되이 모여 사람 되고, 오온은 空하고 거품도 實體가 아님을 통달해야 비로소 본래 眞實을 보리라. ...	*대승불교의 空思想, 五蘊皆空 등은 깨달음(見性)의 근본 바탕
2	東土123	騰騰和尚	<了元歌〉: 흔히 <樂道歌>라고도 함: 根源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 ... 번뇌가 곧 菩提요, 깨끗한 꽃(淨花)은 진흙에서 피나니 ...	*不二法: 見性の 근본
3	東土124	梁나라 誌公和尚 (418~514)	*〈大乘讚頌 十首〉: 大道는 항상 눈앞에 있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네. 만약 道의 참된 本體(眞體)를 깨닫고자 한다면, 色·聲·言語(형상, 소리, 언어)를 없애지 말라. 言語가 곧 큰 道(大道)이다. ...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本心)이 텅 비었음(空)을 깨달으면 眞如를 갖추어 하나도 모자람이 없으리. ... *〈十四科頌〉: 14 사항의 不二: ① 보리·번뇌不二, ② 持·犯不二, ③ 佛與衆生不二, ... ④ 迷·悟不二: 미혹(迷惑)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色·聲·言語: 白雲은 이것을 祖師禪 指導의 실천 방법으로 規定. *14개 사항의 不二法.
4	東土125	「未曾有經」	... 마음은 머물지 않으니(心無所住), 안(內)과 밖 그리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 마음은 지어진 바가 아니니(心無所作) 作者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허깨비 작용(幻化)이 아니니 본래 眞實하기 때문이다. ... 마음은 취하고 버리는(取捨) 것이 없으니 善惡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움직임(動轉)이 없으니 生滅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마음의 본래 성질(自性)이 곧 法의 성품이요, 諸法의 성품이 空한 것은 곧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	*마음의 성품이 諸法의 성품이요, 제법의 성품이 空한 것은 진실한 성품이다. *自性·空에 관한 총정리
5	東土126	「楞嚴經」	*1項: '보는 것(見)과 '보이는 것(見緣)과 '생각하는 것(所想相)'은 헛꽃(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원래 보리(菩提: 깨달음)의 微妙하고 淸淨하고 밝은 本體[本覺]이다. **白雲 着語: '망념은 그 바탕(體)이 본디 空한 것이니, 모든 것(畵)이 그대로 本覺의 마음 바탕(心體)이다(心體元空 全是本覺心體) *2項: "만약 어떤 사람이 참다움을 일으켜(發眞) 根源으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消滅할 것이다"라 하였다. 말하자면, 미혹한 마음에 뒤덮여 있다가 깨달음의 자리(各處)에서 空을 붙이니, 이는 六塵의 그림자가 소멸하면 空은 元來의 覺(깨달음)으로 드러난다. 이른바 空은 사라지고(空消) 숨겨져 있던 깨달음이 드러남(覺發現)이다.	*깨달음(本覺)의 正體. *깨달음의 드러남
6	東土127	「大乘起信論」	*1項: [「起信論」一心 중 心眞如門의 眞如]: 일체의 모든 경계(諸法)는 오직 妄念에 의하여 差別이 있을 뿐이다. 만약 마음에서 妄念이 떠나면 곧 일체 경계의 모습(相: 현상)은 없게 된다. **白雲 着語: 마음이 일어나면(生) 여러 가지 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여러 가지 法도 滅한다. [생각(妄念)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가 바로 眞如(참마음: 깨달음)의 자리] *2項: [「기신론」一心 중 심생멸문 > 아뢰야식 > 覺] 本覺: 깨달음(覺)이란 '마음의 본바탕(心體)에서 망령된 생각(妄念)이 떠나간 것이니, 妄念이 떠나간 모습(相: 상태)은 虛空과 같아서, 이것이 바로 如來의 平等한(差別 없는) 法身이니, [이 법신을 '本覺(본래의 깨달음)'이라 한다]	*「起信論」의 心眞如[門]: 일체의 현상이 나오는 근원. *妄念(分別)·思量識: 집착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그 자리가 바로 眞如(깨달음). *「기신론」의 本覺: 心體에서 妄念이 떠나간 상태: 如來의 平等法身:
7	東土129	圭峰宗密 (780~841)	*本覺의 참 마음(眞心)이 妄念에 가려져 있는 것은 마치 밝은 거울에 먼지가 덮여 쌓여있는 것과 같네. / 이제 사마타(奢摩他: 止)를 作用하여 망념을 맑게 하니 객진 번뇌가 소멸하여 마음이 텅 비네(空). ...	*本覺眞心은 곧 空. *사마타(奢摩他: 止)를 작용하여 망념을 소멸함.
8	東土130	龍牙居遁 (835~924)	*한번 無心을 얻으면 곧 道의 정취요, 六門에서 쉬어짐(休歇)에 몸(形)이 수고롭지 않네. ... 깨닫고 나면 도리어 깨닫지 못한 이와 같고, 승부(勝負)에도 무심(無心)하니 마음이 저절로 편안하네. ...	*無心이 道이다.
9	東土132	古德 頌	*1項: 오온이 모두 공(五蘊皆空)한 곳을 비추어 보아서 깊은 반야(智慧)를 실천할 때 고통과 재앙을 벗어날 뿐 아니라 결정코 無生[生滅이 없는 理致]을 증득하리라./ *2項: 바른 성품을 보고자 하면(見正性) 먼저 我相을 없애야 한다. ... / *3項: 밝은 나무에서 나와 다시 나무를 태우고, 智慧는 情識에서 일어나 다시 情識을 제거한다. 바른 마음(正心)으로 妄念을 관찰하는 것이 지혜라 하니, 智慧는 능히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不可思議라네!	*五蘊皆空 *我相·妄念의 제거. *智慧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不可思議: 지혜의 완성.
10	東土133	薦福承古 (?~1045)	*승고선사는 항상 여러 사람에게 권하였다. "佛法을 [모두] 배우려 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無心하여라! 영리(伶俐)한 근거(根機)는 한나절에 해탈하고, 둔한 근거라도 혹 3년 또는 5년 걸린다. 멀어야 10년을 넘지 않는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老僧이 그대들을 대신하여 '혀를 뽑는 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가리라! [典據: 薦福承古和尚語錄.]"	*祖師禪 공부의 期限을 明明白白하게 제시함 *왕벽의 「傳心法要」 말씀보다 더 구체적: 馬祖·百丈·黃蘗의 祖師禪 實現.

2) ‘東土125~127條에는 ‘미증유경’·‘능엄경’·‘대승기신론’ 세 經論의 핵심 구절을 채택함으로써, 「미증유경」條에서는 마음의 성품(自性)과空的 문제를 총정리하고, 「능엄경」條에서는 ‘깨달음(本覺)의 正體’와 ‘숨겨져 있던 깨달음의 드러남’을 제시하고 있다. 「기신론」條에서는 ① ‘眞如[門]’項에서는 ‘생각(妄念)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가 바로 眞如(참마음: 깨달음)의 자리’임을 摘示하고, ② ‘生滅[門]’項에서는 ‘깨달음(見性)이란 마음의 바탕(心體)에서 妄念이 떠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本覺(본래의 깨달음)이다’라는 핵심 구절을 「직지」의 대단원에 편입시킴으로써, 조사선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깨달음이야말로 「기신론」에서 제시하는 ‘眞如’와 ‘本覺’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백운은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에 근거한 공부야말로 대승불교의 핵심 經論인 「기신론」의 ‘眞如·本覺’에 나아갈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3) <표 4>의 ‘東土129~133條는 「직지」의 대단원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백운이 당시의 學人들과 後代의 讀者들에게 당부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① ‘東土129, 규봉종밀’條에서는 ‘本覺의 참마음은 妄念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상태이니, 사마타(奢摩他: 止; 알아차림)를 작용시켜 망념을 없애기만 하면, 곧 마음은 空이 되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東土130, 용아거둔’條에서는 ‘無心이 道이다.’라는 주제의 계송을 채택함으로써, 祖師禪에서 깨닫는 핵심 콘텐츠(내용)인 ‘無心’을 다시 한번 留念시키고 있다. ③ ‘東土132, 古德頌’條에서는 ‘五蘊皆空’과 ‘我相의 제거’ 및 ‘智慧의 완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祖師禪의 핵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分別·妄想을 없애는 데 있음’을 銘心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④ 「직지」 대단원의 마지막(條)을 장식하는 ‘東土133, 천복승고(?~1045)條에서는, “다만 스스로 無心하여라! 영리한 근기(根機)는 한나절에 해탈하고, 3년 혹 5년이면 見性하며,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解脫)”⁹⁰⁾라는 천복 선사의 法門[言語]을 채택함으로써, 祖師禪 공부의 완성 기한(期限)을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음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심지어 “만약 깨닫지 못하면 이 老僧(承古)이 그대들을 대신하여 혀를 뽑는 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가리라”라고 확언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백운은, 「직지」 편성의 大尾에서, 당시의 學人들과 후세의 우리들에게 ‘조사선의 실천 방편인 ‘色·聲·言語’를 통하여 공부하면 기연(機緣)으로 반드시 見性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음’이 가장 크게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직지」의 편성 167條를 시종일관 貫通하며 제시하는 사항은, 바로 ‘祖師禪의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條가 무려 ‘71條’에 ‘86回’나 채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직지」는 총 ‘167條’ 중 약 2.4條에 하나씩 ‘言下大悟’와 같은 조사선의 깨달음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직지」는 조사선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들을 集大成한 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직지」를 편찬한 목적은 祖師禪을 선양(宣揚)하기 위함이다’라고 구명(究明)할 수 있다.

90) 이 말은 황벽회운의 「傳心法要」 핵심 내용 중 하나인 「脚註 86)의 내용 및 본문(祖師禪 깨달음의 공부 期限)과 對照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결 론

이상 본론 및 說明註(脚註)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 논술한 「백운화상어록」 및 제3장의 분석에서 논급된 「직지」[白雲]着語」 등에 나타나는 ‘백운의 禪思想’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총체적인 사항을 먼저 정리하면, 백운은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祖師禪의 실천 요체(要諦)로 보았다. 白雲은, ‘祖師禪의 전개는 육조혜능(638~713)에서 시작되고 禪의 황금시대인 마조·백장·황벽의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12세기 前期인 원오극근(1063~1135)의 시대까지 조사선이 활발하게 공부·실천되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백운은 祖師禪을 실천 할 수 있는 ‘色·聲·言語’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마음의 바탕(心體)’을 깨달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확립하였다. 이 공부법은 ‘六根의 知覺을 활용하여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祖師禪은 ‘스승(祖師)은 色·聲·言語 방안을 통하여 直指人心을 직접 가리켜 보이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 순간에 즉각 깨달음(見性)’을 핵심(要諦)으로 한다. 이와 같은 ‘白雲의 禪思想’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백운화상은, 1368년(白雲 71歲)에 설한 <興聖寺入院小說>[제3법문]에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의 바탕(心體)’을 깨닫고자 한다면, ‘色[형상·행위]·聲[소리]·言語[말씀·文句]’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文句)에 근거하여 ‘色·聲·言語’라는 祖師禪의 실천 방안을 開發하였다. 그리하여 백운은 마음(道)의 참된 바탕(眞體: ‘體’⁹¹⁾)을 깨달을 수 있는 活路를 열었다. 그리고 백운은, <홍성사입원소설>[제71법문]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모양(相: form)이 없어서 경계(對象)에 의탁할 때 나타난다. 境界의 성품도 본래 비어 있지만(本空)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 ‘경계(境緣)에는 좋고(好) 나쁘(醜) 것[分別]이 없으니, 그것(分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에 억지로 이름(名)을 붙이지 않으면, 허망한 情(妄情: 分別)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허망한 情[分別]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허망한 情[分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마음(眞心)은 두루 알게 될(任徧知) 것이다’ …”라 하여, 마음의 正體를 설파하고 있다.⁹²⁾ 또한 백운은, <홍성사입원소설>[제64법문]에서, “그대들 각자 지혜의 빛을 스스로에게 돌이켜 비추어 보아(廻光返照) 반드시 本源에 了達하여야(要須達本) 하오. …”라고 하여, 각자 廻光返照하여 오로지 근본(本: 心體; 마음 바탕)을 깨닫는(達) 것이 중요하며,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이 마음을 떠나서는 法도 없다.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이고, 마음 그대로가 法이니, 부처(佛)와 법(法)이 둘이 아님[不二法]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백운은 ‘오직 밖으로 향하는 意識을 廻光返照 하여, 마음의 근본(本源: 佛性; 眞如)을 비추어 보아(照見) 곧바로 깨달음(了達) 것’을 당부하고 있다.

91) ‘體’: 『대승기신론』의 ‘三大(體·相·用)’ 중 ‘體’.

92) 이는 ‘境界(‘色’: 對象)를 대할 때, 다만 分別心(分別·妄想)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마음을 본다(見性)’라는 의미로, 이른바 ‘色·聲·言語’ 방안을 통(通)한 깨달음의 秘訣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백운은, 百丈이 제시한 ‘放下着(내려놓음)’ 등으로 일체의思量(妄想)·分別이 없는 無心·無爲로 면밀하게 공부를 길러나가면서,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몰록[단박에] 깨달음(頓悟 見性: 究竟覺, 眞如)으로 나아갈 것임을 당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종래 白雲의 禪思想이라고 간주해 왔던 ‘無心禪’, 바로 그 무심선에서 거론되는 ‘백운의 無念·無心’에 관한 연원(淵源)은 ‘慧能의 無念’, ‘馬祖의 無心’, ‘黃蘗의 直下無心’에서 유래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無念·無心·直下無心’은 모두 祖師의 法門[말씀], 즉 ‘言語(文句)’를 통한 깨달음(見性)의 핵심 콘텐츠[정보, 내용]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이는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의 바탕(體)과 작용(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無念·無心’은 곧 조사선에서 깨닫는 핵심 콘텐츠[내용]이고, ‘色·聲·言語’는 조사선을 실천하는 방편임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無念·無心’과 ‘色·聲·言語’ 방편은 ‘祖師禪에서의 깨달음’이라는 동전(銅錢)의 양면(兩面), 즉 ‘조사선을 통한 깨달음(見性)의 앞면(내용)과 뒷면(실천)’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다.

3) 白雲이 확철대오(廓澈大悟: 1353.1.17.)한 순간을 살펴본 결과, 백운은 ‘端坐 중 『證道歌』의 한 文句[言語]가 떠올라, 이를 깊이 음미하다가 홀연 無心이 되면서 확철대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祖師禪의 ‘色·聲·言語’ 방편 중 ‘言語’를 통(通)하여 즉각 見性한 사례이다. 게다가 백운이 중국에서 大悟(無念眞宗의 깨달음: 1352.1.12.)하였을 때 이를 印可함과 동시에 백운에게 임제종(虎丘派)의 正脈을 전법(傳法)하여 준 석옥청공(石屋淸珙)의 깨달음 기연(機緣)을 살펴본 결과, ‘石屋은 風亭[色]을 보고 깨달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선의 ‘色·聲·言語’ 방편 중 ‘色[형상]을 통하여 즉각 깨달음(見性) 사례이다. 따라서 백운과 석옥은 모두 祖師禪의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석옥청공에서 백운경한으로 전법·계승된 禪風은 바로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곧바로 견성하는 祖師禪이었음’을 확인하였다.

4) 백운은, 1372년(백운 75세)에 <內佛堂 監主, 張老 天浩에게 부치는 글>에서 “... 비록 시방세계 두루 통하는 안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하려면 모름지기 祖師禪을 뚫어야 하리(雖然已得通方眼 爲人須透祖師禪)”라고 강조하면서, [天浩가 고려불교에서] 宗旨의 가르침(宗教)을 드날리려면, 조사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指摘)하였다. 그리하여 백운은, 『백운어록』 <祖師禪>에서, ‘조사선은 色·聲·言語를 떠나지 않는다(祖師禪不離色聲言語)’라는 점을 다시 힘주어 강조하고, “소리(聲)를 듣는 때가 즉각 깨닫는(證) 순간이며, ‘色[형상·행위]을 보는 때가 當場 깨닫는 순간이다”라고 함으로써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조사선의 실천 방안은 곧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활로(活路)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백운어록』과 『직지』에 제시된 白雲의 着語 등에서 ‘백운의 禪思想’을 도출하여 본 결과, ‘白雲의 禪思想’ 특징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祖師禪에 있다’라고 究明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직지』에 편성·수록된 ‘167箇條’에 대하여, 먼저 ‘시작’ 부분과 ‘대단원’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본론’ 부분은 ① 『직지』 편성의 핵심인 ‘육조혜능·마조·백장·황벽’條를 우선 분석하고, ② 『직지』의 편성 총 ‘167條’ 중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條들을

導出하고 정리하여 보았다. 그 결과, 역대의 禪師들이 祖師禪을 실천·공부하여 ‘言下大悟’ 등으로 見性하였음을 明示한 條項은 무려 ‘71개’條에 ‘86회’나 채택·수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직지』에서는, 스승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直指人心을 보여 가르치고, 이에 제자는 즉각 見性한 사례들을 간추려 모아서 編成함으로써, 이른바 『직지』는 祖師禪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한 사례들을 集大成한 책이라고 볼 수 있었다. ③ 백운이 조사선의 실천 방편인 ‘色·聲·言語’를 개발한 배경은 마조·백장·황벽 3대 중 백장의 ‘放下着 실천’과 관련한 示衆 條에서 그 緣由를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色·聲·言語’ 방편을 통한 깨달음(見性) 공부’는 祖師禪의 핵심 공부 방법임을 파악하였다. ④ 『직지』 편성의 大尾인 ‘東土133, 천복승고’條에서는 ‘다만 無心하면 3년 또는 5년에 見性하고, 늦어도 10년이면 깨친다(解脫)’라는 ‘조사선 공부의 완성 期限’까지 확인함으로써, ‘祖師禪을 공부하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經過)하기만 하면 반드시 見性할 수 있음을 보장(保障)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직지』를 편찬한 목적은 祖師禪을 선양(宣揚)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었다.

요컨대, 白雲의 禪思想 특징은 ‘色·聲·言語’ 방편을 통하여 見性하는 祖師禪에 있다. 또한, 백운은 祖師禪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직지』를 편찬하였다.

<참고문헌>

道原(宋) 纂 (1614年(光海 6)). 景德傳燈錄 卷1-3. 木板本. 恩津 佛明山: 雙溪寺,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0074_0001

광덕 譯 (2011). 六祖壇經[德異本]. 서울: 불광출판사.

김상영 (1995). 백운화상.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민족사.

김성수 (2021). 『직지』의 편성체계 및 무심선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86, 35-74.

김태완 (2001). 祖師禪의 실천과 사상. 합천: 장경각.

김태완 역주 (2012). 마조어록. 고양: 침묵의 향기.

김태완 역주 (2020). 황벽어록. 고양: 침묵의 향기.

덕산 역해 (2014). 直指心經(상·중·하). 서울: 비움과 소통.

무비 (2011). 직지 강설(상·하). 서울: 불광출판사.

文智 編 (1981). 薦福承古禪師語錄. 『續藏經』 第126卷. 서울: 寶蓮閣, 435-459.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上·下卷).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所藏 木板本.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下卷. <프랑스국가도서관> 所藏本. 金屬活字本. 寫眞 file.

- 白雲景閑 著 (1990). 釋塚錄. 白雲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第6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637-668.
- 법상 (2020). 선어록과 마음공부. 서울: 무한.
- 釋菩提達摩 製 (1989). 「無心論」. 黃永武 編. 敦煌寶藏 第44卷. 서울: 麗江出版社, 22-26.
- 심성일 (2022). 이것이 禪이다. 고양: 침묵의 향기.
- 원순 譯解 (2015).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大乘起信論 元曉疏·別記). 서울: 법공양.
- 六祖慧能 (1994). 敦煌本 壇經. 古鏡. 합천: 藏經閣, 佛紀2538, 55-152.
- 은정희 譯註 (1992). 대승기신론 소·별기. 서울: 일지사.
- 이병욱 (2002). 백운의 선사상.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405-431.
- 조영미 옮김 (2019). 백운화상어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至柔 편. 이영무 譯 (2000). 석옥청공선사語錄[福源石屋[淸]珙禪師語錄]. 서울: 불교춘추사.
- 최석환 편 (2010). 석옥·태고 평전. 서울: 茶의 세계.
- 退翁性撤 編譯 (1994). 古鏡. 합천: 藏經閣.
- 허홍식 (1997).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指空禪賢-. 서울: 일조각.
- 黃蘗希運 (1994). 黃蘗壇祭禪師語錄/傳心法要, 宛陵錄. 古鏡. 합천: 藏經閣, 403-534.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gun Gyeonghan.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Woodblock Edition of Jangseoga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Baegun Gyeonghan.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Metal Movable Type of Collections of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hotography.
- Baegun Gyeonghan (1990). Baegun Hwasang Orok. Seoul: Dongguk University, 637-668.
- Choi, Seok-hwan ed. (2010). Critical Biography: Seokok · Taego. Seoul: Cha eui Segye.
- GoangDuk (2011). Yukjodankyung. Seoul: Bulkwang Media.
- Heo, Heung-Sik (1997). Light of India moved to the Goryeo. Seoul: Iljogak.
- Hwangbyeokheeun (1994). Hwangbyeok Orok. Kogyung. Hapcheon: Jangkyunggak, 403-534.
- Jiyu ed. & Translated by Lee, Young-mu (2000). Seokok cheong-gong Orok. Seoul: Bulgyo Chunchusa.
- Kim, Sang-young (1995). Baegun Hwasang. History of Korean Buddhism. Seoul: Minjoksa.
- Kim, Sung-Soo (2021).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Jikji and the Ideology of MusimSeo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6, 35-74.
- Kim, Tae-wan (2001). The Practice and Idea of Zen. Hapcheon: Jangkyunggak.

- Kim, Tae-wan (2012). *Mazu's Zen Dialogue*. Koyang: Chimmukbooks.
- Kim, Tae-wan (2020). *Hwangbyeok Orok*. Koyang: Chimmukbooks.
- Lee, Byeong-wook (2002). *Seon Thought of Baegun(白雲)*. *Buddhist Thought in Goryeo Period*. Seoul: Hyeon, 405-431.
- Mubi (2011). *Lecture of Jikji*. Seoul: Bulkwang Media.
- Mungi ed (1981). *CheonboksnggoSeonsaeorok*. *Sokjangkyung* 126. Seoul: Boyeonkak, 435-459.
- Seokbojedalma (1989). *Theory of the Unconscious*. Seoul: Yeogang Chulpansa, 22-26.
- SeongChul (1994). *Kokyung*. Hapcheon: Jangkyunggak.
- Sim, Seong-il (2022). *This is the Zen*. Koyang: Chimmukbooks.
- Translated by Beopsang (2020). *Zen and Mental Discipline*. Seoul: Muhan.
- Translated by Cho, Yeong-mi (2019). *Baegun Hwasang Orok*. Seoul: Dongguk University.
- Translated by Deoksan (2014). *Jikjisimkyung*. Seoul: Bium kwa Sotong.
- Translated by Eun, Jung-hee (1992). *Mahayana's theory of initiation*. Seoul: Iljisa.
- Translated by Wonsun (2015). *Mahayana's theory of initiation*. Seoul: Beopgongyang.
- Yukjohyeneung (1994). *Altar Sutra of Dunhuang*. *Kokyung*. Hapcheon: Jangkyunggak, 55-152.